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이승철, 29일 하버드에서 무료 자선 콘서트

탈북 청년 합창단과 통일을 염원하는 드림온 캠페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가수 이승철이 오는 29일 하버드 대학 메모리얼 교회에서 'Dream On' 이라 칭한 무료 자선 콘서트를 연다. 탈북청년합창단과 이승철의 합창, 독창, 그리고 이승철의 단독 공연이 진행된다.

이 콘서트는 순수하게 문화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ON 캠페인 (One Nation: 하나의 국가)' 의 첫 프로젝트다. 탈북청년들이 스스로 합창단을 구성해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을 도와 통일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승철 나서면서 'On 캠페인(On Nation)' 이 시작됐다. 현재 이승철을 주축으로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과 탈북청년합창단은 통일을 염원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 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하고자 한다. 단순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을 넘어 통일송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캠페인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HM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승철은 "낮선 한국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남모름 고통을 지닌 이들 탈북청년합창단은 언제든 남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하며 "30년 동안 음악인으로 활동하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행보를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고 가슴 속의 메시지를 전했다.

콘서트 장소인 하버드 대학의 메모리얼 교회는 800석 규모를 자랑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승철은 독도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을 투어하며 자선콘서트를 펼치는 중이다. 보스톤에 앞서 27일 자유의 여신상에서도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2장의 VIP 콘서트 티켓과 이승철의 사인 CD 한 장이 증정된다.

epark@bostonkorea.com



일시: 8월 29일 오후 4시

장소: The Memorial Church at Harvard University  
One Harvard Yard, Cambridge, MA 02138

가수 이승철이 29일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에서 탈북 청년 합창단과 함께 무료 콘서트를 연다

## 15일 개봉 '명량' 무료 티켓 증정 이벤트 결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명량' 무료티켓 증정 이벤트 당첨자가 확정됐다.

유학생, 이민자, 주부, 군인 등 총 43명의 독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명량' 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 역사와 영화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댓글, 가족 또는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댓글, 센스 넘치고 재치있는 댓글 등이 달렸다.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1, 2차 심사를 통해 8개의 댓글을 선발했다. 7명 추첨이 원칙이었으나, 편집진을 고민케 하는 좋은 댓글들이 많아 심사숙고 끝에 8명을 추첨했다.

선발된 8명은 닉네임 얼레리, 장군사랑, 나즘취봐여쭙, 고은비,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65~

9, 10, 11월 비수기 보스톤출발 왕복 항공권

8월 1일부터! IACE가 보스톤 손님들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합니다!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1a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합 우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합 우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 우울증 그리고 카르페 디엠

장명술 |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카르페 디엠. 늘 웃음 띤 얼굴, 친근한 이미지의 로빈 윌리엄스의 비보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였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님 역을 맡아 <순간을 즐겨라>고 했던 그가 우울증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울증은 “능력을 약화시키는 증후군”이다. 너무 파괴적이어서 인간이 추론하고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조직 호르몬을 변화시켜 버린다. 달리 말해 항거하기 힘든 질병이다.

미 정신건강원에 따르면 우울증은 18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1천6백만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병중의 하나다. 유전적,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발병원인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 질병처럼 우울증은 흔한 혈액 검사나 MRI로 검진되지 않고 유일하게 대화만이 진단할 수 있는 근거다. 이때문인지 사람들은 혈액, 엑스레이, MRI, 등에서 확진되는 질병보다 심

각하지 않게 생각한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감추게 된다. 또한 기껏 털어놓으면 우울증을 단지 슬픔에 휩싸인 감정 정도로 처리하고 빨리 이를 극복하라며 어울리지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조언이란.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조차 부인한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어떤 약물도 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우울병의 발단이 다르듯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성급히 일반화된 치료는 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울증에 완벽한 치료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병을 마감하지는 않는다.

우울증의 한가운데서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란 단어를 마주치는 것은 웬지 어색하다. 더욱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의 생

각으로부터 불쑥 튀어 나왔으니 그렇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라틴 시인 호레이스의 서사시 오데스에 나오는 문구로 “순간을 즐겨라”는 의미로 자주 등장한다. 위키피디아는 본래 시의 시인이 에피큐리언 배경을 갖고 있어 뜻을 많이 오해하는데 실제적 의미는 내일이 있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 강조한다. 같은 말이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커다란 의미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아온 로빈 윌리엄스는 웃음과 고통 사이에서 힘들어했을 것이다. 많은 팬들의 사랑으로도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에게 카르페 디엠은 어떤 의미였을까. 순간의 쾌락인 약물, 알코올 등으로 행복은 결코 만나지 못했던 것 같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얼마 전 행복에 관한 10계명을 발표했다.

첫째가 자신의 삶을 살고 타인의 삶도 존중하라 즉 원칙대로 살고 그 삶을 본받게 하라, 둘째가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을 열고 마음을 주라, 셋째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라, 넷째, 삶의 여유를 가져라 즉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문학과 예술을 즐겨라, 가족과 식사할 때 TV를 꺼라, 다섯째, 일요일은 쉬어라. 여섯째, 젊은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 약물에 집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자살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일곱째,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여덟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아홉째 개종을 강요하지 말라,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열째, 평화를 위해 일하라.

프랑수아 트로르의 소설 <구뎀씨의 행복 여행>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또 등장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등이 다.

구뎀씨가 여행에서 돌아와 사람들에게 선물한 카드의 내용은 감동적이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카르페 디엠 즉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의미를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무시해버린다.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포기할 때 카르페 디엠을 변명으로 늘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결국 삶의 태도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교황은 10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구뎀씨는 카드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법정 스님의 조언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다. 가슴이 답답해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는 그의 말은 묘한 울림을 준다. “산다는 것은 소유함이 아니라 순간 순간 있음이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내가 명량을 봐야하는 이유

▶▶1면에 이어서

보고 싶다, kwonyb, pilotfish, planopkm 이다. 닉네임 shuiki, music0311, 행복한곰은 접전 끝에 아쉽게 탈락했다.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벤트 참가자는 보스톤코리아로 항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티켓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픽업해야 하고, 보스톤코리아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명량'은 한국에서 개봉 15일만에 1200만을 돌파했고, 전미주 개봉일인 15일보다 한 주 앞당겨 상영된 LA에서는 주말 내내 전회가 매진돼 상영관이 늘어났다. 추가된 상영관마저도 연회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명량'은 미주에서도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티켓 픽업 장소: 보스톤코리아  
161 Harvard Ave. Allston, MA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당첨된 댓글

< planopkm >

...(중략)...한국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국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최근 많은 가슴아픈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이즈음에 선조들의 뜨거운 구국, 충성의 마음과 지도자의 자세의 중요성을 온국민에게 일깨워 주는 이 한편의 명화는 마치 더운 여름날의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처럼 반갑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흥행영화는 흥미주의의 소재들을 다루어 재미는 주지만 전 가족이 함께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량은 흥행작이면서도 한국 역사에 근거한 명화로 한국을 오래 전에 떠나 미국에서 한국역사 대신에 미국역사를 공부한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며 ...(중략) 세계 해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승을 승화시킨 명화 속에서 당시로 돌아가 그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보스톤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여러분과 교민분들을 위해 좋은 행사를 마련하신 보스톤 코리아 감사드립니다

<kwonyb>

이 - 이견 꼭 내가 당첨되어서 보러 가

아해...

순 - 순순히 내놓으시죠 보스톤 코리아님

신 - 신기하게 이렇게 쓰면 꼭 당첨 안되더라..

명 - 명량 꼭 보고싶는데, 나보다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량 - 양보 못함

<나즘쥐봐여쭙>

이렇게 기다렸는데 티켓 가지고 이리 기 있가~ 없가~!

<pilotfish>

일본에서 태어나 유치원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왔다가 초등학교 시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보스톤에 와 있는 우리 두 아이.

일본 초등학교에서 역사시간에 토요일 미 히데요시가 나오는 역사책에 그 이름을 지우고 이순신장군 이름을 대신 써 넣고, 발표시간에는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해 발표해서 교장선생님을 감탄케 한 우리 큰 아이. 2002년 다섯살 때 보았던 한일 월드컵 경기를 기억하고 지금도 찾아보는 우리 큰 아이 조선시대를 다룬 역사드라마(동이, 세종, 이산, 해품달 등)를 계기로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둘째. 한국에서 살아본 세월을 다 합해봐도 6개월이 채 안되지만 정체성은 확실한

우리 두아이. 이런 우리아이들에게 '명량 대첩'이란 역사의 한 자락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레리>

벅속의 아이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감!!  
두장으로 세명이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ㅎㅎㅎ

<고은베>

지면 관계상 고은베님의 댓글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사랑>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님의 호국 정신에 감동하여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육군만기제대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인간애가 넘치는 품성을 배우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저에게 표를 하사해 주시면 이순신 장군님처럼 훌륭한 위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싶다>

이런 말 하는 제가 정말 싫지만, 영화는 정말로 보고 싶은데 영화관에 갈 돈이 없습니다.

제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park@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박에바다 Ephatha Par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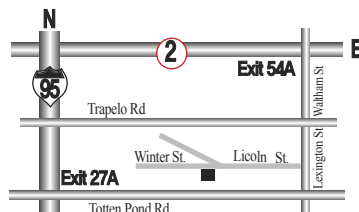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 Grade 11 )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 Grade 10 )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 Grade 9 )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 Grade 12 )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카페베네 '미숫가루' 라떼·프라페 큰 인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한국인의 대표 건강 음료인 '미숫가루'가 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

카페베네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Fox 뉴스에서 밀, 보리, 검은콩, 수수, 참깨, 검은쌀로 만든 카페베네의 미숫가루를 넣은 라떼를

크게 보도했다.

한국인들은 미숫가루를 오래 전부터 건강 음료로 만들어 즐겨 마셨다며 이제는 바쁜 미국인들의 든든한 아침 대용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 카페베네가 개발한 미숫가루를 이용한 라떼, 프라페 등은 올봄 카페베네가 출시한 버블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판

매량을 보이며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페베네 USA 마케팅을 담당하는 제이슨 리 팀장은 "이번 Fox 뉴스 보도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고객들이 미숫가루 라떼를 찾고 있으며, 건강한 한식의 세계화를 기대해본다" 라고 전했다.

카페베네는 미국에 진출할 당시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두고 고추장쌈 샌드위치, 김치바게트 등을 선보여왔다.

카페베네 보스톤점에서도 미숫가루 라떼와 프라페 등이 판매될 예정이며 8월 19일로 보스톤점 정식 오픈일이 확정됐다.

epark@bostonkorea.com



# 미연방 이민국, '주민과의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미연방 이민국(USCIS)에서는 오는 27일 '이민국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열어 한국어권 이민자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과 함께 추방 유예 조치(DACA)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다.

뉴욕 이민국 사무소에서 행사가 진행되지만, 보스톤 거주자들은 텔레컨퍼런스를 활용해 영상\*음성 회의로

참여할 수 있다. 1-800-779-5793로 전화를 걸어 암호(:DACA)를 말하면 텔레컨퍼런스로 연결돼 실시간 참석이 가능하다.

이민국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으나 개인 참여가 불가능한 한인들은 8월 20일까지 보스톤 코리아에 질문을 보내면 된다. 제목에 '이민국 질문'을 입력하고 보스톤코리아 이메일로 (bostonkorean@hotmail.com) 질문

을 보내면, 보스톤코리아에서 이민국에 질문을 제출한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제목에 'Korean'을 입력하고 publicengagement@uscis.dhs.gov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epark@bostonkorea.com

# H마트에서 한국으로 추석선물 보내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9월 8일)을 앞두고 '한아름 고국통신판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고객맞춤을 준비를 시작했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년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갈비/정육, 굴비/전복, 과일, 꽃,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15% 할인해 판매한다.

고국통신판매를 담당하는 손정룡 팀장은 "이번 추석은 38년만의 가장 빨리 찾아온 일명 '여름추석'임을 감안해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정육/굴비는 물론, 여름 보양식인 활전복과 풍천장어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에는 100% 품질보증제

가 적용돼 배송된 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우의 경우 소포장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가격을 내렸다.

서울지역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평균 1~2일, 그 외 지역은 3~4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추석연휴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 주문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이전에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2일까지 주문해야 한다.

H마트닷컴(www.hmart.com) 웹사이트나 TOLL FREE 전화(1-800-648-0980)를 통해 주문가능하며 H마트 매장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미 이공계 한인박사들, 귀국보다 미국 잔류 선호도 늘어

## 한, 고급두뇌 유출 현상 대책 부족, 국비장학생도 해외 잔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한인 박사들의 절반 정도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 체류를 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과학재단(NSF)이 공개한 '2014 이공계 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4868명 가운데 44.6%가 미국에 정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미국 체류 확정자 비율이고 희망자까지 합하면 67.9%의 한인 박사들이 귀국 대신 미국에 남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한인 박사들 2명 중 1명 꼴로 미국 체류를 확정하는 것으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지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하

는 한인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사실상 실제 수가 증가한 셈이다. 계열별로는 생물학 전공자 중 61.4%가 미국 체류를 확정했고, 희망자까지 합하면 비율이 무려 85.8%에 달한다. 뒤이어 물리·지구과학이 57.7%, 보건 49.5%, 수학·컴퓨터과학 43.0%, 엔지니어링 41.7%, 사회과학 29.2% 등이 미국에 남기를 선호했다.

이처럼 한인 박사들이 귀국을 꺼리는 이유는 해외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만큼의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열악한 연구환경 때문이다.

대부분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학 교수직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 연구소 연구원직으로 일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면서 대학의 신규 교수 채용이 줄었고, 경기 침체로 연구소 취업 기회도 감소했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발간한 '19대 미방위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연구인력 1만 740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37.6%였다.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처우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상목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과 연구개발(R&D)비는 크게 증가했으나 사실상 연구관리직, 계약직,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연구원은 임금변동없이 일거리만 늘어난 것과 다름 없



다"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에서 수학 Post-doc 과정을 마쳤다. 귀국을 고려한 적도 있으나 어린 두 아들의 교육문제, 경제상황, 한국의 직장문화 등을 고려해 결국 미국에 남았다. 현재 미국 석유회사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체류 결정이 잘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두뇌 유출 현상은 국비 장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

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장학금으로 미국 등 48개국에서 공부하는 국비 유학생 434명 가운데 56.9%가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고급인력들은 열악한 취업환경·대우와 함께 비자율적인 직장문화, 자녀교육, 경제적 상황 등의 추가적인 이유로 여전히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RI 한인회, 광복절 행사 한인입양한 미 가정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예바다 기자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오는 24일 브리스톨 공원에서 한인들은 물론 한인자녀를 둔 미국인 가정들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거행한다.

RI 한인회는 광복절 기념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기 그리기, 비치 발리볼, 사물놀이 공연, 어린이 행사, 참전용사를 위한 게임 등 모든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행사는 한국인 자녀를 입양한 미국 가정들을 초청해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한국요리 강좌 시간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동문 RI 한인회장은 “입양된 한인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거리감을 느끼며 한국문화 속에 어울리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미국 부모들의 한국을 알기 위한 열성과 노력이 대단하다. 한인행사가 있을 때 자신들이 참석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올 정도” 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문화센터’ 라 칭한 RI한인회관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단체들도 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음식 문화에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외

국 단체들이다.

이 회장은 “한인 연례 행사 중 가장 하이라이트인 광복절 기념행사를 잘 활용해 우리 한인들간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미션을 수행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며 의지를 다졌다.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매년 8월 ‘VJ(Victory over Japan) Day’ 라 칭한 휴일을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전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전미를 통틀어 유일하게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만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의 뜻깊은 8월 대표 기념일과 한국의 광복절이 맞물려 미국참전용사, 미국 현지 가정들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문 한인회장은 “미국인들도 광복절을 축하해주는 마당에 이 의미를 한인들이 다같이 되새겼으면 한다” 며 “미국은 독립기념일 때 차에 국기를 달기도 하는데 한인들도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기양하면 좋겠다” 고 바람을 전했다.

광복절 행사 장소로 선정된 Bristol Parks & Recreation 은 해변(pebbly beach)과 넓은 잔디구장, 어린이 공원시설, 배구장, 대형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 갖가지 이벤트를 위해 안성맞춤이다.

이 날 한인회에서는 한인회비 접수 및 한인회 웹사이트 광고 접수도 받는다.

보스톤 총영사관에서는 이날 여권 관련, 비자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쪽에 데스크를 따로 마련한다.

각종 문의는 이동문 한인회장(401-451-8518)에게 하면 된다.

일시: 8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Bristol Parks & Recreation  
주소: 101 Asylum Rd, Bristol, RI 02809

epark@bostonkorea.com



지난 2012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주최로 열렸던 광복절 행사 모습



## 모밀국수 (X) -> 메밀국수 (O)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메밀'이 맞는 말입니다.

메밀은 정확히 언제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5세기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메밀국수와 메밀묵은 임

진왜란 이후에 식량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일반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밀"이라는 말이 왜 쓰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메밀'로 맞게 써 보세요.

## RI 한인회, 한국전 정전기념식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지난 달 27일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서 제61주년 한국전 정전기념식에 참석했다.

로드아일랜드 참전용사회장인 존 갈로(John P. Gallo)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국전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도열식, 로버트 케나한(Robert E. Kenahan) 중사의 미국 국가 제창, 존 갈로 회장의 국기에 대한 맹세, 케네스 라파운틴(Kenneth LaFountain)목사의 기도 순서 등이 이어졌다.

초청연사로서 프로비던스 시장인 엔젤 테버라스(Angel Taveras), 케빈 맥브릿지(Kevine R. McBride) 소장, 콜로닐 디어도

어 로우 (Colonel Theodore F. Low) 소장, 로드아일랜드 이동문 한인회장이 연설했다.

특히 현역 장군인 케빈 맥브릿지 소장은 연설에서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0년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의 안녕이 유지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결코 잊혀져선 안 될 전쟁임을 재차 강조했다.

행사 후에는 'American Legion Post 79' 에서 참석한 미군인들과 함께 핫도그 파티를 가지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좌근 전임회장과 백옥진 전임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한미시민협회,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오는 30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무료 워크샵을 진행한다. 21번째 진행하는 이 워크샵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모든 참석자들의 신청서(N-400) 작성, 사진촬영, 복사 등 시민권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을 돕는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시민권 인터뷰 당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상 되거나,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3년이상 동거하고 있거나, 3년이상 군대에 복무한 경우다.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영주권(그린카드), 소셜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 (\$595)와 지문 채취료 (\$85) 총 \$680의 개인수표 혹은 머니오더(Payable to 'USCIS'), 미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가져와야 한다.

N-400 신청서는 기재 사항이 많아 당일 작성할 경우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기입해 가져



지난 2013년 워크샵에서 진지한 얼굴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한인들.

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와 서명이 요구되는데, 워크샵에서 한인 변호사들이 각 기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무료로 서명을 해준다.

시민협회에서 서류 복사, 사진촬영, 발송용 봉투 등을 제공하며 시민권 취득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 문제집과 해답집이 수록된 '시민권 종합 안내서'를 무료로 배부한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N-400)과 설명서는 [www.uscis.gov](http://www.uscis.gov) 에서 왼쪽 'Immigration Forms' 을 클릭하고 'forms and fees' 를 선택한 후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관한 개인별 특별문의(예: 불법체류 사면자, 전과자 등)는 이경해 시민협회장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보스톤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문의: 한미시민협회장 이경해 508-962-2689

이사장 김성군 (617)799-7033

[bosotnkorean@hotmail.com](mailto:bosotnkorean@hotmail.com)

# NE 대학 동문연합 친선 골프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대학 동문회 연합은 8월 23일 제 4회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골프 대회가 서강대학교 동창회 주관으로 2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경쟁보다 친선과 화합을 추구하는 이 대회는 NE 지역 7개 대학 동문회는 물론 타대학과 미국 대학 동문들도 환영한다.

두명이 한조를 이뤄 스코램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해 초보자도 즐길 수 있으며, 팀을 못 짜더라도 개인 참가가 가능하다. 개인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고,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며 상품과 트로피도 마련된

다. 상품은 골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다.

한편, 대학 연합에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각 대학 동문회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미예술협회 국악 공연에 기부했다.

일시: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2:30 (오전 11:45분까지 도착해야 함)

장소: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

참가비: 개인당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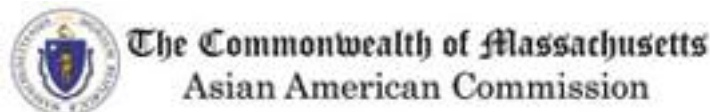
문의: 서강대 동문인 이재규 [jaeqllee@gmail.com](mailto:jaeqllee@gmail.com), 978-314-9620

[bosotnkorean@hotmail.com](mailto:bosotnkorean@hotmail.com)



# Asian American Commission 사무총장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의 아시아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Asian American Commission(AAC) 에서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을 채용한다. 지원자는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서 3년-5년의 경영 및 관리(management)경험이 있어야 한



다.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석사 학위 소지자는 우대한다. 연봉은 4만불정도다. [www.aacommission.org](http://www.aacommission.org) 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커버 레터와

이력서를 [job@aacommission.org](mailto:job@aacommission.org)로 보내면 된다. 지원 마감은 오는 18일이다.

문의: 이경해 위원 (508)962-2689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mailto: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NE 한인들을 위한 창조경제 및 창업 토론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KABIC(Korean American Bio-Industry Council)은 오는 18일 MIT에서 지역 한인 및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창업과 창조경제를 증강시키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스웨덴,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의 창조경제 및 창업 예시 분석, 뉴잉글랜드 창업인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첨단기술과 바이오산업에 관심있는 한인들을 위한 사업 장려 및 실질적 도움 제공이 이 모임의 개요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의 창업을 증진하는 방법(How to Promote Korean-American Entrepreneurship in the New England Reg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창업에 성공한 CEO들, 신생(start-up)기업가, 산업 전문가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한다.

한인 혹은 재미교포 창업가들이 투자자금을 모색하고 확보하는 방법, 한미 정부, 커뮤니티 단체,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패널리스트가 전체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중에 참석자들은 주제에 따라 실행가능한 향후 계획과 아이디어를 구상하도록 장려된다.

KABIC은 실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도 정보와 자원이 부족해 창업에 어려

움을 겪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을 위해 여러번의 체계화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정부, 기업의 자원을 끌어들이 한인 및 재미교포들이 뉴잉글랜드의 창조경제를 증강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의 네트워크가 발전되기를 전망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엄성준 총영사, 뉴잉글랜드 재미교포 커뮤니티 리더들, 교육 및 비즈니스계의 주요 한인 인사들도 초청됐다.

지역 한인, 1.5세와 2세, 창조경제와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www.kabic.org 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이벤트는 영어로 진행된다.

epark@bostonkorea.com

# MA주 공립 대학교들 성공적 펀드레이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공립 대학교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부분에서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매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5개 캠퍼스와 9개의 주립 대학의 연간 모금 금액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올해 유매스 캠퍼스의 연간 모금 금액은 1억 1150만 달러에 이른다. 2004년의 6,3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매사추세츠 주의 다른 주립 대학도 지난 10년 사이 모금액이 94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유매스의 로버트 캐렛 총장은 보

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타나는 숫자들은 우리가 봐왔던 숫자들 중에 가장 좋다. 우리가 들고 있는 노력과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즐겁다” 며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저렴한 교육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금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유매스는 작년부터 전 캠퍼스에 걸쳐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매스의 목표는 연간 1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다.

현금 외에도 각종 물품 등의 형태로 주립 대학교에 대한 민간 부분의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매스 로웰의 마티 미헌 학장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유매스에서의 교육 비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졌다. 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지금은 학생과 그 가족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의 모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로빈 윌리엄스를 애도하는 의미로 많은 팬들이 영화속 대사 또는 편히 잠들라는 내용의 R.I.P 등의 조문글을 가득 적어 놓았다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p><b>Brookline Office</b>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p>	<p><b>Newton Office</b>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p>
--	--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영화속 보스톤 가든 벤치 로빈 윌리엄스 동상 설립 제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화 <굿윌헌팅>의 촬영 장소였던 보스톤 가든의 의자에 로빈 윌리엄스의 동상을 만들어 아카데미 수상 배우를 기념하자는 제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MIT 기계공학부 한 관계자인 게리 맥클린은 현재 팬들의 추모글과 꽃이 물리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보스톤 가든의 의자에 항구적인 기념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맥클린은 보스톤 시 공원부와 함께 보스톤 가든을 보존 관리하는 '보스톤가든친구들(Friends of the Public Garden)'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보스톤가든친구들 대변인은 공원에 동상을 세우는 일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 온라인 상



1997년 아카데미 상 남우조연상과 대본상을 수상했던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

의 논의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벤치가 비컨 힐 거주자인 바바라 두네이씨가 스폰서한 벤치이다. 공원관리를 위해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최소 15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 다른 공

원을 세운 사람들을 제치고 로빈 윌리엄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맥클린이 아이디어를 레드넷에 올리자마자 청원사이트가 만들어졌고 8월 14일 현재까지 1만 4천명이 청원했다. hsb@bostonkorea.com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영화 '굿윌헌팅'에서 앉았던 벤치는 추모의 장소가 됐다.

## 로빈 윌리엄스 앉았던 보스톤 가든 벤치 추모 열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일 사망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굿윌헌팅> 영화장면에서 앉았던 보스톤 가든 벤치에 추모하는 팬들이 방문 애도를 표했다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함께 앉아있었던 장면을 담은 굿윌헌팅은 1997년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던 대표적인 보스톤 배경의 영화다. 팬들은 로빈 윌리엄스의 발자국을 그려놓는가 하면 영화에서 사용했던 대사를 쓰면서 그를 추념했다. 어떤 팬은 꽃을 의자에 놓기도 했다 이 보스톤 가든의 벤치는 이 영화에서 아주 핵심적인 장면으로 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이 영화로 보스톤 출신의 배우 맷 데이먼과 친구 벤 애플릭은 대본상을 거머쥐며 스타덤에 올랐고 로빈 윌리엄스는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다.

영화 굿윌헌팅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분한 손 맥과이어 역은 당초 멜 깁슨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브레이브 하트의 성공으로 스케줄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로빈 윌리엄스가 대본을 보고 참여를 확정지었다.

맷 데이먼은 "로빈을 안 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나는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맷은 "그는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 즐거움을 끝까지 지닐 것"이라고 밝혔다.

배트맨을 맡게 되는 벤 애플릭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로빈 윌리엄스는 나와 매튜(맷 데이먼)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다. 그에게 빛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며 그를 추억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팬들은 티뷰론에 위치한 자택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영화촬영지 등을 방문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영화속에 장소에는 많은 꽃들과 분필로 쓴 조문으로 가득차 있다. 8월 13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문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주지사, 마켓바스켓 직원들 업무 복귀 요청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13일 현재 마켓 바스켓의 매매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회사를 도울 수 있다며 파업중인 마켓 바스켓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권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쫓겨난 전 CEO 아서 T 데모울라스와 마켓 바스켓 이사회 의장인 키이스 코웬과 대화를 나눴으며 양측은 판매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거나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모두가 마켓바스켓의 매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솔직히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켓 바스켓 직원들이다. 일에 복귀함으로써 회사를 안정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직원들 자신에 달려있다.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마켓 바스켓은 지난 7월 19일 이후 직원들의 파업으로 정상 영입이 힘들었으며 창고직원들도 전 CEO인 아서 T 데모울라스의 복귀를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해 사실상 마켓 바스켓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수지분을 가진 아서 T 데모울라스측과 다수 지분을 가진 아서 S 측 사이의 협상에서 풀어야 할 것은 가



향의 집회를 가진 마켓 바스켓 직원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일단 업무복귀를 권장했지만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격 측면에만 국한 되는 아니다. 지난 8월 초의 성명서에서는 양측이 동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서 T 측은 자신의 사촌의 요구하는 일부 조건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릭은 현재 매매 조건이 타결됐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거부했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업무 복귀만이 마켓 바스켓의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3일 회사의 독립이사 3명은 성명서를 통해 드벌 패트릭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아서 T 데모울라스에게 이사회가 제시했

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다시 권장했다. 이사회는 그와 주요 매니저들을 다시 업무에 복귀토록 하지만 현재의 CEO에 업무를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은 패트릭의 업무 복귀 권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 일부 소비자들과 직원들은 주지사가 현재 회사 이사회와 아서 S. 데모울라스를 편들게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이사회는 200여명의 직원들에게 오는 15일 금요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개인들에게 서한을 발송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 비컨힐 주민들 인도 보수공사 반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비컨힐(Beacon Hill)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스톤 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 시에서 진행 중인 보도 블록 교체 공사가 비컨힐의 역사적인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비컨힐 주민들이 조직한 단체인 비컨힐 시민 연합은 지난 12일 썬피 상급 법원에 “시 정부가 (비컨힐의) 역사적인 구역에서 인도와 도로의 풍경을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재건축하거나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비컨힐 시민 연합이 소송을 접수한 12일은 보스톤 시가 비컨힐 지역에서 도로 정비 공사를 시작한 날이다. 보스톤 시는 비컨힐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경사로와 인도를 교체할 예정이다.

비컨힐 주민들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경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주위 모습과 잘 어울리는 화강암을 사용하여 인도 공사를 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 월시 보스톤 행정부는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컨힐 시민 연합의 키타 길모어 이사장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월시 시장은 인도 보수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미국 전역의 다른 역사적인 장소에서 기발하고 멋진 아이디어들이 적용된 것을 봤다.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건축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스톤 시는 비컨힐의 인도 공사는 연방법을 준수해서 진행되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홍삼으로 힘내세요!

성적도 UP  
면역력도 UP



\*본 행사는 매정별 한정수량이며, 제품소진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품홍삼 정품 정관장 제품은 미주 40개 가맹점 및 지정 판매처에서만 판매합니다.

면역력의 힘!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 정관장 더블 UP 새학기 잔치

새학기는 자녀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시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BACK SCHOOL 학생용 아이패스

15% OFF

BACK SCHOOL 만 3~5세용 홍이장군 양아록

양아록 구입 시 어린이용 홍삼 포밍워시 또는 페이스크림 무료 증정 (\$20 상당)

BACK SCHOOL 만 5~9세용 홍이장군 만 9~13세용 홍이장군 울트라

홍이장군 또는 울트라 구입 시 어린이용 홍삼 포밍워시 또는 페이스크림 무료증정 + 홍삼정환 31.5g 추가 증정 (총 \$35 상당)

SPECIAL SALE 부모님들을 위한 홍삼추출액

홍삼추출액 1개 구입시 5% 할인 홍삼추출액 2개 이상 구입시 10%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상당수 운전자들 이지패스 사용에 거부감

이지패스 사용하면 더 저렴하고 편리해, 편리한 걸 알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거부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이지패스(E-ZPass)를 사용하면 더 편하고 저렴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토빈 브릿지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모두 전자식으로 바뀌었으며, 매스 터널파이크는 오는 2016년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주 정부는 이지패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지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차량에 이지패스를 부착한 운전자는 토빈 브릿지를 지날 때 크레딧 카드를 통해 2.50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추후 번호판에 있는 주소지로 3.50 달러가 우편으로 청구된다.

무료로 배포되는 이지패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토빈 브릿지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26.6%가 이지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지패스를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웰에 거주하는 수잔느 드레데르니에는 이지패스가 무료로 배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지패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 계좌도 있고, 이지패스 사용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를 통해 자동 납부가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



토빈 브릿지에서는 더 이상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그냥 지나가면 추후 요금징수서가 우송되어 온다.

지 않아 이지패스를 달지 않고 있다.

드레데르니에처럼 이지패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는 것이 싫다고 하며, 크레딧 카드를 통해 자동 납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금액이 청구될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토빈 브릿지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바꾸면서 이지패스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광고를 통해 이지패스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 운전자들이 손쉽게 이지패스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이지패스를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목적 때문이다. 이지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번호판의 주소지로 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일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다른 주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징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지패스를 사용할수록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다.

새로운 전자식 요금 징수 시스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소속의 줄리안 위커는 “운전자들은 저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휴가철임에도 매스파이크 막히는 이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평상시 매사추세츠에서 운전하는 것은 늘 정체와의 싸움이지만 7, 8월은 가장 운전이 편한 기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민 절반 정도가 휴가로 이곳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8월에도 매스 터널파이크(Massachusetts Turnpike)가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체가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사추세츠 교통부(DOT)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매스파이크에서는 프루덴셜 터널과 커먼웰스 애비뉴 중반부 수리작업을 시작했으며 다리 하부구조

도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4차선인 것을 3차선으로 줄여야했으며 밤중이나 주말에는 더 많은 차선을 줄이게 될 예정이다. 가장 괴로운 문제는 앞으로 이 공사가 2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매스파이크를 이용시에는 반드시 더 많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완전히 질력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한 통근자는 평시 45분 걸리던 거리를 2시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패트릭 주지사 포괄적 총기규제 법안 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총기 구입시 범죄경력 조사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규제법안에 13일 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 공공안전행정처에 웹사이트를 신설해 일반 총기 판매처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경찰내에 총기 밀수단속 부대를 창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 서장들에게는 무기 구입에 부적절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장총이나 샷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총기 신분증 발급을 부인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상 지역 경찰서장들은 자의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기 신분증 발급을 부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이번 법안으로 매사추세츠주는 전국

즉시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주 정부가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이상범죄 정보를 연방 데이터 베이스에 보고해 경찰이 총기 구입 신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학교에서 총기 휴대 처벌, 차량 탈취시 총기 휴대 처벌, 범죄를 위한 주내 총기 반입 또는 총기 판매 처벌을 강화시켰다. 또한 도난된 총기에 대한 신고를 안한 판매상들은 면허를 정지 또는 폐기토록 했으며 모든 총기를 압수토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 교사 및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학교와 경찰 및 소방서와 쌍방향 통신 접근을 의무화했고 학교는 교사들에게 3년에 최소한 2시간 이상 자살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격히 번지고 있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로버트 케네디의 미망인 에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명했다

## 미국내 열풍,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아십니까?

케네디 가문 오바마에 도전, 저스틴 팀버레이크, 지미 팔론 등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찬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자신이 도전하는 상대(때론 유명인)를 지목하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케네디 가족은 11일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마친 후 오바마 대통령을 도전자로 지명했으며, 보스톤 마라톤 피해자 두 명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대상자로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지명기도 했다.

11일 고로버트 케네디 헤이니스포드 집에서 일렬로 선 후 각자가 아이스 버킷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리고 고로버트 케네디의 미망인 에델 사카켈 케네디는 물을 붓기 바로 직전 “케이프 코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신을 지명합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지명했다.

현재 마사스 비니어드에서 휴가 중

인 오바마는 12일 백악관 대변인 에릴 슈츠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록 대통령은 금전적인 기부만 할 것이지만 케네디 부인이 도전자로 생각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ALS 자선모금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ALS(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자선모금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전 보스톤 칼리지 농구선수였으며 ALS로 진단받고 현재 베벌리(Beverly, MA)에 거주하는 피트 프레이츠(29)가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이 온라인을 타고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ALS 협회에 따르면 기부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폭증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백30만불이나 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

만5천불이 모였을 뿐이므로 거의 100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무려 7만 1천 명의 기부자가 올해 들어 증가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이렇게 작용한다. 도전을 수락한 사람은 아이스 버킷을 뒤집어 쓰기 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ALS 돕기 자선모금을 위한 것이란 취지를 밝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도전할 사람을 지명한 후 물을 머리에 붓는다. 24시간 이내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ALS자선행사에 \$100을 기부해야 한다.

현재까지 오바마, 케네디일가,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 뉴스 앵커, 줄리언 에들먼 패트리어츠 선수, 브루윈스 선수, 경찰, 소방대원 그리고 보스톤마라톤 피해자 심지어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까지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 시의회, 헤이스택 파킹앱 금지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공 파킹장소를 앱 이용자들끼리 살고 파는 앱 헤이스택에 대해 보스톤 시의회가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브가 13일 보도했다.



시의회는 정부운영위원회는 공공장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예약하거나, 리스하거나 파는 것을 정확하게 금지하는 시조례에 대해 증언을 청취했으며 빠르면 8월 셋째 주 내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 조례가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브에 밝혔다.

이 조례로 인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볼티모어 소재의 파킹 앱 회사 헤이스택의 보스톤 운영문제다. 지난 7월 보스톤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 앱은 공공장소에 주차한 운전자가 앱에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고 올리면 인근의 다른 운전자가 수수료를 내고 그 주차 공간을 구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불이 부과되지만 최고 15불까지 부과되기도 한다. 헤이스택은 25%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마틴 월시 시장은 헤이스택이 보스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으며 진출 당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었다. 5명의 시의원들은 13일 열린 회의에서 헤이스택의 창시자 에릭 마이어를 강하게 심문했다. 이들은 공공장소의 일반 접근을 제한한다는 문제와 강한 분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메이카 플레인 지역구 의원 맷 오말리는 보스톤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드파크 시의원 티모시 맥카시는 헤이스택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능을 하는 것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현금을 위한 장사”라고 성토했다.

마이어는 현재 보스톤에 5,000명의 가입자가 있으며 보스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시의회의 입법을 반대했다. 새로운 조례는 테크놀로지와 창조에 반하는 투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자신의 앱을 집카(Zipcar) 서비스와 빗대어 비교했다. 집카는 공공파킹장소를 주차장으로 두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독점 사업 모델이며 특히 볼티모어에서는 149 공공 파킹장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글로브가 볼티모어 시에 확인한 결과 볼티모어는 102 공공 주차장소를 집카에 제공하며 집카는 매달 40불의 주차요금을 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스톤은 공공주차장을 집카의 주차장소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산정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미주리 흑인 총격사망 논란 확산...FBI 직접수사

### 목격자 "저항 없었다"...항의시위 폭력사태로 비화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한미희 기자 =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에서 10대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도시 전체가 들끓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11일 AP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브라운(18)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FBI는 시민권을 침해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FBI 세인트루이스 지부 대변인 세릴 미무라는 전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교를 막 졸업한 브라운은 전날 퍼거슨시의 외할머니 집 근처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브라운이 경찰의

총 몇 발을 맞고 숨졌으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들은 경찰이 비무장 청년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

당국은 총을 쏘기 전 난투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왜 경찰이 브라운에게 총을 쏘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현재 휴직 중인 해당 경찰의 인종을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

하지만 목격자인 필립 워커는 총소리가 났을 때 현장이 보이는 현관 베란다에 있었고, 백인 경찰이 브라운과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또 브라운이 팔을 들어 올려 항복 의사를 보였지만 경찰은 브라운의 몸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쏘고 그가 쓰러지고 나서도 총을 쏘으며, 그전에 난투는 없었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브라운 가족의 변호는 2012년 플로

리다주에서 흑인 고교생을 권총으로 쏘 살해하고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정당방위로 풀려난 '지머먼 사건'의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벤저민 크럼프가 다시 맡았다.

퍼거슨시에서는 전날 밤 흑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의시위가 밤이 되면서 약탈과 폭력사태로 번져 32명이 체포됐으며 이날 밤에도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브라이언 셸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 대변인은 이날 최소 5명을 체포했으나 시위대의 약탈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퍼거슨시는 인구 2만1천여 명의 소도시로,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이다.

sims@yna.co.kr



미주리 퍼거슨 시 흑인들이 고교를 막 졸업한 마이클 브라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거리에 나서서 항의했다

# 흑인인권단체 "미주리 총격 경찰관 이름 밝혀야"

(서울=뉴스1) 이혜림 기자 =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마이클 브라운(18)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는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이름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건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경찰관 이름 공개를 통한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윌리엄 브룩스 NAACP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의 신원을 계속 감추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머스 잭슨 퍼거슨 경찰서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당초의 발언을 철회했다. 해당 경찰관이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잭슨 서장은 "이름 공개로 인한 소득보다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볼 위험성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잭슨 서장은 소셜미디어에 경찰을 성토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브라운이 사망한 이후 계속되는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에 적대적인 구호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는 경

찰서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해 경찰관과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룩스 NAACP 회장은 "퍼거슨 경찰에는 직원 보호 의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의무도 있다"며 "주민들은 그동안 경찰이 보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도 AP통신에 비밀주의가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퍼거슨에서는 브라운 사망 이후 사흘간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약탈과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수십명이 체포됐다. 전날에도 경찰이 최루탄과



동료 흑인의 죽음으로 인해 항의 폭동이 일어났지만 상점을 약탈해 피해를 주는 일부 흑인들. 제 2의 LA사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한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 미주리 흑인소년 경찰 사살, 한인 사회 피해

(서울=뉴스1) 이혜림 기자 = 미국 미주리 주(州)에서 비무장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데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화한 가운데 한인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12일(현지시간) 미주리주 담당 공관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카운티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로 휴대전화 판매점과 미용용품 상점 등 7개의 한인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퍼거슨시에는 한인 소유 상점이 20여곳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1/3이 최대 수천만원씩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제2의 '로드니 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1년 백인 경찰이 흑인 트럭 기사 로드니 킹을 무차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들끓기 시작한 흑인들의 분노는 경찰

의 무죄 판결로 폭발해 LA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흑인들의 분노는 LA 상권을 장악한 한인 교포사회로 향해 LA 한인 타운의 90%가 파괴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카운티 퍼거슨시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를 찾아온 마이클 브라운(18)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됐다. 백인으로 알려진 경찰은 브라운이 두손을 들고 저항 안한다는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 수발의 총격을 가해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 상태에서 숨진 흑인 청소년을 추모하며 시작된 항의 시위는 약탈, 공공기물 파손 등 폭동으로 번졌다.

퍼거슨시는 인구 2만 여명 중 3분의 2가 흑인인 지역이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들

고무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등 충돌이 잇따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인 위주인 경찰과 흑인이 다수인 퍼거슨 주민 간의 오래된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브라운과 그의 친구에게 길

에서 떠나라는 말을 한 이후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얼마 후 순찰차 안에서 총이 발사됐다는 등의 내용만 공개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경찰관이 두손을 든 브라운을 향해 수차례 방아쇠를 당겼다고 증언하고 있다.

wolf85@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3 – 8/1

가을학기 시작 9/9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 출구 못찾는 세월호 정국, 재협상 놓고 여야 공방

## 여 의총서 대다수 '재협상 불가' 입장...민생법안 분리 처리야, 김무성 정조준...특검 추천권 주겠다던 김무성, 결단해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현 기자 =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합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결정 이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는 가운데 여야는 13일에도 각각 '합의 준수'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 관련 법률 개정안, 세월호 피해학생의 정원의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도 함께 지연되고 있어 이달 말 실시 예정인 1차 국정감사,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특별입학 적용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조현통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본회의의 보고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돼 당분간 국회 계류 상태로 표류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재협상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는 아주 잘못된 합의"라고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 관련 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원천적인 민생 문제"라며 "국회가 세월

호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부터 분리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민생입법-세월호특별법 분리처리론'을 내세웠다.

야당은 당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한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내세우며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김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지기는커녕 야당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일을 어렵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만드는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김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줬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추가 협상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 전까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18일 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1차 국정감사와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가 이달 30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도 본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haru@news1.kr

## 새정치연합, 세월호법 '다시 협상' 결의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로 인해 추진을 하지 못하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사항인 13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론 18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추진이 무산되면서 당내 추진을 위해 이날 의총 개최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반 가량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8월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8·7 합의'를 파기하고 전면 재협상

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의총 결의문에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 대신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 의총에는 80여명이 참석해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치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8·7 합의'의 협상과정과 의미를 설명한 데 이어 유가족들이 요구한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은 지난 7일 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기존 합의안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sanghwi@news1.kr

## 대한변협, 유가족 뜻 반영 세월호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뜻을 반영한 입법 청원안을 맡았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유가족 뜻을 반영한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위 회장은 이날 오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먼저 찾아 50분간 면담했다.

위 회장은 아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 추천권만이라도 유족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을 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그게 정 안된다면 대안으로 특검 추천권이라도 유족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찾았으나 이 원내대표가 개인일정으로 부재중이라 면담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위 회장은 이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박 원내대표와 협상을 잘 이어가달라"고 부탁했다.

sanghwi@news1.kr

###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교재가 확실하다!</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교사진이 확실하다!</b>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한국문화가 확실하다!</b>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b>이노피(Enopi) 교재</b>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b>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b> 유치!
셋째,	붓글씨, 탈춤,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b>체험학습!</b>

###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26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4-2015학년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15, 2014 - AUG. 21,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BACK 2 SCHOOL BACK 2 SAVINGS!

Enjoy The Best In Back 2 School Savings at Hmart!

새 학년의 시작을 마트와 함께 하세요!  
 새학기 준비,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종가집**  
 사은품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AUG. 23 - AUG. 24, 2014 at ALL HMART MA STORES  
 ENJOY IT WITH OUR FREE GIFT FROM CHONGGA WITH PURCHASE.  
 PURCHASE CHONGGA'S 5.5 LBS. MAT OR POGGI KIMCHI & TAKE HOME A FREE 1.1 LBS. YOUNG RADISH KIMCHI.  
 종가집 맛김치 또는 포기김치 5.5 LBS. 구매시, 종가집 열무김치 1.1 LBS. 무료증정!

**SPICE UP YOUR LIFE WITH HONG CHO**  
 CHUNG JUNG ONE  
 청정원 홍초 여름 특별 이벤트!  
 홍초 마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무료 증정품도 받아주세요!  
**FREE GIFT**  
 CHUNGJUNGONE Vinegreat Drink  
 청정원 홍초세트  
 Pomegranate+Blueberry/  
 Pomegranate+Blackberry  
 30.4fl.oz. x 2btl./pkg.  
**\$12.49**  
 청정원 홍초세트 구매시  
 청정원 올리브유 도시락김 9병  
 제품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p><b>GLASSON RETRO GLASS JAR W/RANGE TUMBLER</b>                  레트로물병 &amp; 렌지텀블러                  1J-901/3pcs/pkg.  <b>\$5.49</b></p>	<p><b>SHINIL ELEC. MULTI-FUNCTION VACUUM CLEANER</b>                  신일 싸슬이 진공 청소기                  SVC-650SG/ea.  <b>\$43.99</b></p>	<p><b>HELLO HOME ELEC. KETTLE</b>                  헬로홈 전기 무선주전자                  F-725/Black/1.8L, F-727/White/1.7L.  <b>\$16.99</b></p>	<p><b>NUTELLA HAZELNUT SPREAD W/ SKIM MILK &amp; COCOA</b>                  13oz.                  뉴텔라 헤이즐넛 스프레드  <b>\$2.99</b></p>	<p><b>ORION CHOCO PIE</b>                  오리온 초코파이                  11.85oz.  <b>\$1.99</b></p>
---	--	--	---	--

<p><b>Fuji Apple</b>                  후지 사과                  lb.  <b>\$1.49</b></p>	<p><b>Napa Cabbage</b>                  배추                  box  <b>\$9.99</b></p>	<p><b>Koimo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lb.  <b>\$1.49</b></p>	<p><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b>Organic Spring Mix</b>                  유기농 스프링 믹스                  5oz./for  <b>2\$4</b></p>
<p><b>Boneless Beef Rib Eye Steak</b>                  소 등심 스테이크                  8up/lb.  <b>\$9.99</b></p>	<p><b>Beef Top Blade Steak</b>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7.99</b></p>	<p><b>Boneless Pork Loin</b>                  돈가스                  lb.  <b>\$4.99</b></p>	<p><b>Chicken Drumstick</b>                  치킨 드럼스틱                  lb.  <b>\$1.29</b></p>	<p><b>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b>                  양념 발정 돼지 목살 스테이크                  lb.  <b>\$4.99</b></p>
<p><b>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 고등어                  400-600's/lb.  <b>\$2.99</b></p>	<p><b>Illex Squid</b>                  병동 오징어                  450-600's/lb.  <b>\$1.99</b></p>	<p><b>TONGTONGBAY Cooked Shrimp</b>                  통통배 쿡새우                  26-30's/lb.  <b>\$13.99</b></p>	<p><b>SAM SU GAB SAN Brown Rice</b>                  삼수갑산 현미                  15 lbs.  <b>\$9.99</b></p>	<p><b>CHORIPDONG Nutri-Whole Grain Brown Rice</b>                  초립동미 5분도미                  15 lbs.  <b>\$19.99</b></p>
<p><b>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b>                  닭표 스리라차 칠리소스                  28oz.  <b>2\$5</b></p>	<p><b>HORMEL FOODS Spam 스팸</b>                  25% Less Sodium/                  Classic/Lite - 12oz.  <b>2\$6</b></p>	<p><b>CHORIPDONG Seasoned Dried Squid</b>                  초립동미 오징어채                  불고기/백반식 - 7.04oz.  <b>\$6.99</b></p>	<p><b>PEI TIEN FOODS 12 Grain Crispi Roll Snack</b>                  12곡 크리스피롤 스낵                  Original/Seaweed - 6.35oz. ea./for  <b>2\$3</b></p>	<p><b>BINGGRAE BBBIG Red Bean Ice Bar</b>                  빙그레 비비빅                  2.7fl.oz. x 8ea./pkg.  <b>\$3.99</b></p>
<p><b>HATA Ramune Soda</b>                  하타 라무네 소다                  All Flavors/5.75fl.oz.  <b>\$0.99</b></p>	<p><b>ROSE BUD Coffee Mix</b>                  로즈버드 커피믹스                  Original/Mocha                  100g/pkg.  <b>\$12.99</b></p>	<p><b>SHINIL Elec. Mixer</b>                  신일 믹서기                  SMX-WK1500/1.5L/ea.  <b>\$39.99</b></p>	<p><b>Pororo Dream Cushion Mat</b>                  뽀로로 드림 쿠션 매트                  140cm x 200cm/ea.  <b>\$199.99</b></p>	<p><b>GABSAHANSHIL Sitting Cushion</b>                  감사한실 방석                  All Colors/ea.  <b>\$11.99</b></p>
				<p><b>BADAAECHAN Roasted Seaweed Laver</b>                  바다애찬 장흥군 무산 재래김                  0.7oz. x 3ea./pkg.  <b>\$3.49</b></p>
				<p><b>ORION Gosomi Snack</b>                  오리온 고소미                  11.96oz.  <b>\$2.99</b></p>
				<p><b>CHEF'S SELECTION Coffee Maker</b>                  셰프스 셀렉션 커피 메이커                  12cups/ea.  <b>\$12.99</b></p>

# 청 '박대통령, 세월호 당일 경내서 21회 보고받아' 답변

### 여 조원진 청와대에 답변 요청...대통령 시간대별 행적 나와 야 김현미 "청문회서 다 나온 얘기...7시간 행적답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보고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21회에 보고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측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3차례나 출석해 한 답변과 같지만 구체적으로 몇시에 누가, 어디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시간대별로 나온 건 처음"이라며 "오늘 오전에 요구해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 밖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안보실 서면 보고를 받은 등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총 21회 유선 및 서면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또 오전 10시30분쯤 해경정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조 의원은 "청와대는 국가 안보 시설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경호 필요 상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청와대는 밝

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사고 초동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활동이 회의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매 20~30분마다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 의원 브리핑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 의원이 한 얘기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다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느냐가 핵심인데, 야당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대통령은 보고서를 다 봤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관련 당일 해적을 두고 총의를 치르고 있다

내렸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정에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간사의 브리핑으로 의혹만 더욱 커졌다. 4월16일 대통령 보

고 수준이 어땠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청문회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smith@news1.kr

## '박대통령 의혹보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검찰 소환 거부

### 12일 소환 통보...가토 지국장,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불응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지국장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타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12일 검찰 출두를 통보했지만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등 문제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

랑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자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현정권이 '데입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사단법인 영도지킴이 독도사랑회(이사장 길종성)는 7일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9일 기사를 통해 "산케이 서울발 기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에 대한 초점

을 맞춘 내용이었다"며 "검찰의 개입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기사 게재 후 청와대에서 산케이 서울지국에 항의를 했고 주일 대사관에서 도쿄 본사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며 "산케이신문은 기사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보도 경위 등을 추궁한 뒤 청와대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chindy@news1.kr

## 정의당 "세월호법, 최고 우선 민생법안"

### 천호선, 여에 "국민 위해 반복·타협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의당은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대립하는 것에 대해 "두당이 힘겨루기를 할 한가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법안 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과 가족들이 모여 합의를 만들어내자"고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여당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또 다시 마치 야당이 민생을 무시하는 듯 몰아가려 한다"며 "생명을 지키려는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청와대는 새누리당

에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접고 어떤 특별법, 어떤 조사와 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재협상을 수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합의를) 몇 번을 반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말을 무겁게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 "이번 방한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이뤄진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고자, 밀양 송전탑 주민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smith@news1.kr



천호선 정의당 대표

## 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 더 큰 고민하겠다?

### 유가족 원하는 수사권 포함 또는 특검권 야당 이양 안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집권여당으로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보다 더 큰 고민을 해보겠다"고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박 원내대표보다 두배 세배의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도록 몸부림 치겠

다. 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양보와 타협은 안 된다는 것이 의총 결과"라면서 기존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에는 반대해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하겠다"며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가족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재협상에는 반대한 반면 또한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아직 논의도 되지 않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시, 결국 새누리당이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보상 배상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hsb@bostonkorea.com



잊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공항 안착... 박대통령이 직접 영접

### [교황 방한] 오후에 청와대서 공식 환영식 및 면담·연설 진행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과파'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순교의 땅'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13일 오후 4시(현지시간) 알리탈리아항공 전세기편으로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출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10시16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 안착했다.

공항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 전세기 트랩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영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89년 당시 성(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교황 방한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했다. 앞서 1984년과 89년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때도 당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 교황을 영접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에게 "이번 방한이 우리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면서 "짧은 방한이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과거 교구장으로 있었던 아르헨티

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도 많은 한국인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 기쁘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사목(司牧) 방문하며, 이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천주교 행사인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와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천주교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포함한 4차례의 미사를 집전하는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각종 행사 지원 및 준비에 있어 정부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의전과 예우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예우를 갖춰 영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항엔 박 대통령 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박홍렬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

한 우리 정부 관계자, 주한 교황청 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과 신도 대표 등 50여명이 나왔다.

교황이 비행기에서 내리기에 앞서 기내 영접은 파딜라 대주교와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이 했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엔 박 대통령과 함께 공항에 나온 환영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공항 환영객으로 나온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교황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공항에선 모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교황의 공항 도착 모습은 TV를 통해서도 전국에 생중계됐다.

박 대통령은 교황이 방한 기간 이용할 국산 소형자동차(기아자동차 '쏘울')를 타고 공항을 떠나기에 앞서서는 "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영접 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엔 우리 측에선 외교부 윤 장관과 주청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그리고 교황 측에선 파롤린 대주교와 파딜라 대주교가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의제와 연설 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천주교 순교자 시복 미사 집전 등 교황의 이번 방한의 의미를 평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황은 작년 3월31일 부활대축일 강복(降福)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빈다. 그곳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길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교황의 이날 연설 또한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ys4174@news1.kr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경우 형이 3년 감형됐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 연구소 대표·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

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모의 주체인 참석자들이 범죄행위인 '내란'의) 시기, 대상,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의 윤곽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한다"며 "회합 당시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호응했다 해서 이들이 내란의 실행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위원장 등이 회합 이전에 내란 모의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다"면서도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 등은 선동의 목적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기에 통일혁명 완수를 위해 대한민국 기간시설을 파괴하려 했다"며 "(이 의원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bilitykl@news1.kr

## 총리 김영란, 경제부총리 장하준, 법무 조국

### 경향신문 온·오프통합기획 '국민이 뽑는 드림내각'에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시민이 추천한 국무총리 후보 1위에 올랐다.

7·30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시민들이 직접 입력으로 추천한 총리 후보 1위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온·오프통합기획으로 진행중인 '국민이 뽑는 드림내각'에서 13일까지 시민 1만6000여 명이 참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후보자추천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 시민 55%의 추천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식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재조명 받았던 '김영란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3%의 추천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40.33%라는 의미 있는 득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를 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까칠한 비판'을 했던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이 24%로 뒤를 이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중도성향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79%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경력과 남북관계에 유화적인 입장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67%,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김삼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80%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카이스트 정재승 바이오 및 뇌공학 부교수

, 법무부 장관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엔 임권택 감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의장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후보군 외 인물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입력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총리 1위를 기록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에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외교부 장관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전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가장 많이 추천됐다. pjy1@news1.kr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려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http://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http://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http://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일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핵심증인 "가해자들 윤 일병 배 지근지근 밟아"

## 목격자 김 일병, 인권위 조사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 말도 안돼" 진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사건 발생 당시 의무지원반 입실환자였던 김 모 일병(21)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가해자들이 밟로 윤 일병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며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8사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김 일병은 지난 4월 14일~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현장조사관에 이 같이 밝혔다.

천식으로 의무지원반에서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은 전역 상태인 김 일병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 중에 하나가 콩팥이 파열된 것이라고 들었다"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나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군 수사당국이 최종판단한 윤 일병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군인권센터 등은 '구타에 의한 쇼크사'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는 앞서 사인에 대한 군인권센터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질식사 판단 배경에 대해 "과다출혈이 있었으면 내부 장기 창백 등의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소견은 없었고 복강내 출혈도 많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14개 가운데 1개만 구타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윤 일병의 비장이 손상됐다"고 했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일병은 "언론을 보면 윤 일병이 음식을 먹던 중 폭행을 당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던 도중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건 당일 음식을 먹기 전부터, 도중, 먹은 후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일병이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2차례에 걸쳐 긴급수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지난 8일 이 모 병장(26)을 포함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 사실로



11일 오전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이 SDT(헌병 특수임무대)와 함께 헌병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 3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수감되며, 조사는 3군사령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상해 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했다.

또한 김 일병은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생활관을 순찰하긴 했으나 가해자들은 보초를 한 명 세워놓고 순찰 여부를 확인하면서 폭행했다"며 "어느날은 윤 일병에게 폭행 사실을 간부에 보고

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선임병도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틀간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대부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윤 일병 가족들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앞서 "현장조사

에서는 이미 군 수사당국에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완료하고 가해자를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 등이 확인돼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했다"며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했고,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다"고 해명하 바 있다.

baebae@news1.kr

## 관심병사 8만 시대... 군셀프관리 더는 안된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육군에만 총 8만여명에 달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군 당국의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나란히 동반자살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사격훈련 중 병사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잃은 사고가 12일을 전후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예 이참에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번에 숨진 3명은 모두 각 부대에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자살 우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A~B급 관심병사들이었다.

앞서 8일에는 징계를 앞두고 있던 A급 관심병사가 군용트럭을 몰고 탈영해 버스와 자동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끝내 민간인 1명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현재 이 민간인은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사고에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군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과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제한을 추진하는 등의 대안을 발표했으나 여

론은 여전히 싸늘한 눈초리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동작구 아파트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동반자살한 28사단 소속 병사 중 A(21)상병은 6월 말께 후임병에 "B상병(23)과 8월 휴가에서 동반자살할 것"이라며 계획을 예고까지 했다.

결국 A상병은 예고한대로 휴가를 나와 B상병과 나란히 목매단 시신으로 발견됐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한데 이어 부대를 탈영해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A상병의 자살계획을 들은 후임병은 이를 분대장에 보고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간부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

수차례 울린 경고음에도 끝내 이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숨진 병사들은 그간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지정해 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전문상담관이 지속적 관리해왔다"고 항변했다.

특히 자살 계획을 미리 통보했던 A상병의 경우 자살시도와 탈영 사건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에 올랐으나 가족의 반대로 계획은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8사단 동반자살 사건은 숨진 이들이 수차례 경고 신호를 보냈었다는 점에서 2005년 경기도 연천GP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관심병사제의 한계를 여실히 입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 상병과 B 상병은 입대 후 복무 부적응을 호소해 각각 8회, 7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2월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는 '비전캠프'에도 나란히 입소했다.

A상병은 지난달 군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에도 입소, 사실상 현행 군령안에서 마련된 모든 예방조치를 거쳤으나 군은 끝내 이들의 선택을 막지 못했다.

육군에는 현재 관심사병이 총 8만811명으로 전체의 23.1%에 달한다. 이 중 고위험군의 A급 관심사병은 8634명에 이른다.

매년 급증하는 관심병사 추이를 볼 때 전문가들은 "문제 인물을 빨리 내보내겠다"는 차원의 현 단계 대책으로는 절대 '구멍' 매꿀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baebae@news1.kr

## 육군 법무실장 논란 발언 "윤일병 사건 수사 완벽했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육군본부 김흥석 법무실장(준장)이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된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에 대해 육군 내부망에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법무통합망에 올린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자세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최초 수사를 지휘한 28사단 검찰관에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초임검찰관임에도 보인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28사단 검찰관은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특히 그는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를 불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사단 사건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일종의 여론몰이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를 비롯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자료를 통해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은 병무병과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라며 "순수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baebae@news1.kr

# 8月 AMORE SUMMER EVENT



에어쿠션® 구매고객님께  
스템셀 3종 트라이얼 키트를  
증정합니다



\$90이상 구매시 or 바이오에센스 구매시  
뿌리는 바디로션 해피바스 퍼퓸  
바디미스트-목화향을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8/1~8/31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Seoul Soup in Se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LONGTANG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 SUMMER SPECIAL 냉면개시!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트: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Church of the Holy Spirit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Walnut Pastry  
**cocohodo**

코코호도과자에서

프랜차이즈 원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 Review Application
- Interview Applicant
- Market Research Feasibility Study
- Approval Terms
- Grand Opening
- Employee Training
- Continuation
- Design Drawing

서울: 01-588-1303, FAX: 031-339-4080  
LA: 213-448-7417, 714-870-4003  
**MA: 212-230-1002**

작은 금액 사업 시작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ditional help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FREE** Enrollment June 1-30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http://www.jeikids.com)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 제실일안식일에수제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일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mailto: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http://www.bkadventists.com)





# PROSPECT

##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 Crouser & Suh PLLC

##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 NFL 프리시즌 파워랭킹,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2위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을 차지한 시애틀 시호크스는 올해도 우승후보 1순위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아직 2014 NFL 정규시즌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다.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각 팀의 전력을 예측해볼 수 있고,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각 팀별로 부상 선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선수를 방출하거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도 한다.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시즌 전체의 경기력은 물론 선발 로스터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각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NFL 각 팀별로 십여 명의 스카우터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리시즌 2주차에 접어들어 시점에서 스포츠 전문 매거진 블리처 리포트가 선정한 NFL 파워랭킹 중 상위 5팀을 소개한다.

### 5위. Denver Broncos

지난 시즌 수퍼볼까지 진출한 브롱코스는 부족한 수비를 보충하기 위해 오프시즌 동안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브롱코스의 수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올해도 NFL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2014시즌을 앞두고 브롱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러닝백 몬티 불이다. 브롱코스 공격의 핵심은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지만, 수퍼볼 우승까지 바라보려면 브롱코스의 러닝 공격이 살아야 한다. 매닝은 분명 브롱코스를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즌의 교훈은 매닝 혼자서

는 수퍼볼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레이오프의 추운 날씨와 상대팀의 강력한 수비를 흔들기 위해서는 브롱코스의 러닝 공격이 위력적이어야 한다.

### 4위. New Orleans Saints

세인트스는 수비 코치 탑 라이언을 영입한 뒤로 해가 갈수록 수비가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있다. NFC 남부지구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뚫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비가 필수다. 강력한 수비에 덧붙여 NFL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 드류 브리스가 건재하기 때문에 세인트스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세인트스에서 중요한 선수는 오픈시브 라인에서 레프트 태클을 맡고 있는 테런 암스테드다. 올해 프로 2년차가 되는 암스테드는 주전 라인맨으로 전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인트스 공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3위. San Francisco 49ers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이너스는 수퍼볼을 노리기엔 손색이 없는 팀이다. 그러나 프리시즌 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라인배커 알돈 스미스의 출장 정지 등의 이유로 3위에 랭크되었다.

프리시즌 개막전에 출전한 나이너스의 백업 쿼터백 블레인 개버트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만큼 주전 쿼터백 폴린 캐퍼니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캐퍼니는 이미 지난 시즌에서 주전 쿼터백으로 충분한 활약을 했지만 이제는 나이너스의 공격을 한 차원 높이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 2위. New England Patriots

패트리어츠는 나이너스가 선수들의 부상으로 3위가 되면서 2위로 올라섰다. 트레이드와 드래프트를 통해 수비 선수들을 대폭 보강한 패트리어츠는 10년만에 수퍼볼 우승을 노리고 있다.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쿼터백 탐 브래디지만, 오히려 브래디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다. 패트리어츠는 지난해 그롱코스키가 없어도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건강한 그롱코스키 없이는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도 어렵다.

### 1위. Seattle Seahawks

레이븐스나 자이언츠와 달리 시호크스는 수퍼볼을 연이어 제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팀이다. 리그 최고로 꼽히는 수비가 건재한 상태에서 공격력도 일부 포지션에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호크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패스 공격까지 더해지면 시호크스는 상당한 폭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리시버 퍼시 하빈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6

# 쌓아 올리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로이 맥길로이의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 로이 맥길로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골퍼들이 언제나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골프를 잘한다 함은 바로 이러한 갑작스레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PGA Championship 우승으로 3개의 대회 연속으로, 그것도 메이저 대회가 2번이나 있는 와중에 자신의 경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 맥을 이어 내려오는 골프 황제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일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골퍼가 아니라 꾸준한 실력을 발휘하는 골퍼를 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다. 올바른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컴퓨터에 앉아 퍼팅, 칩샷, 피칭샷, 샷게임, 드라이버샷, 아이언샷 등등의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동영상상 통하여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위의 지인이나 골프 티칭 프로들로부터도 얼마든지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캐내기 위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하여 몸에 익히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올바른 알고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본기를 충분히 다질 수 없다. 기본기 없는 꾸준한 실력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한때 골퍼를 잘하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둘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기대치를 갖는 것이다. 자신의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이 또한 실력이다. 자신의 실력과 동떨어진 목표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이럴때 바로 뜨겁기만 한 가슴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 필요하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책상 머리에서는 아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필드에만 나가면 뜨거운 가슴이 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골프의 묘미가 있는 지도 모른다.

# 미언론 "다저스 패배보다 류현진 부상이 더 걱정"

## 5와 3분의 2이닝동안 삼진 7개 잡으며 분투 3실점으로 아쉽게 14승 사냥 실패에 부상 겹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한국인 원수 투수 류현진(27)이 경기 중 급작스러운 엉덩이 근육 이상으로 강판되자 외신들도 아쉬움과 걱정을 표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14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진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류현진을 부상으로 잃는 것은 다저스의 계획에 전혀 없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LAT는 "9회 1사 만루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류현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우려했

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2-3으로 뒤진 6회말 수비 때 오른 엉덩이 근육 쪽에 이상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그전까지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6안타와 사구 세 개를 내주고 3실점한 류현진은 결국 팀이 2-3으로 패하면서 패전투수로 기록됐다.

다저스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이 오른 엉덩이 근육에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LAT는 앞선 5경기에서 무패행진을

달린 류현진의 부상 소식은 최근 투수진 줄부상을 겪은 다저스의 고민을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저스는 현재 선발투수 조시 베크트와 스윙맨 폴 머홀름이 부상자명단(DL)에 올랐으며, 시즌 초에는 선발투수 채드 빌링슬리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아 지금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류현진이 경기 중 부상으로 불운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abbie@yna.co.kr



류현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엉덩이 부상을 당했다

## 류현진, 정밀 검사 예정 다음 등판 여부는 미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류현진(27·LA 다저스)이 조만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14일(한국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류현진은 LA에서 팀 주치의의 날 엘트라체를 만나 MRI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다저스의 선발로 등판한 류현진은 6회말 2사 후 B.J. 엡튼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오른쪽 다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에서 빠졌다.

다저스 구단은 경기 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의 부상이 오른쪽

둔근 근육 좌상이라고 밝혔다.

매팅리 감독은 "경기 중 몇 차례 투구가 약간 이상한 것을 봤다. 리허니컷 투수코치와 함께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단은 부상자 명단(Disabled List)이 아닌 '데이 투 데이' 명단에 올랐지만 다음 등판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매팅리 감독은 "아직 류현진이 다음 로테이션을 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류현진이 불가능할 경우 케빈 코레이아가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류현진은 언제나 빠르게 복귀해 덕아웃을 안심시켰다. 예상일



뿐이지만 5일 뒤에는 투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류현진의 빠른 복귀를 기대하기도 했다.

폭주했다.

## 류현진 부상, 햄스트링 아닌 엉덩이 근육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류현진의 부상이 햄스트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14일 미국 애틀랜타 터너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와 원정 경기에서 6회 2사 후 B.J 엡튼에게 9구째를 던진 후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의 통증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곧바로 트레이너 및 통역을 마운드로 호출했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운드를 내려왔다. 현지 중계진은 류현진의 햄스트링 부상을 우려했다. 류현진이 만진 부분이 허벅지 뒤쪽이었다. 이 경우 최소 2주간의 재활이 필요한 햄스트링 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햄스트링이 아닌

엉덩이 근육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저스는 구단 트위터 계정을 통해 "류현진이 오른쪽 엉덩이 근육 염좌(right gluteus muscle strain)로 교체됐다"며 "데이 투 데이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엉덩이 근육이 긴장돼 통증이 발생한 뜻이며 부상자 명단(DL)이 아닌 하루하루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다.

## 이광종 아시안 축구대표 감독 "박주호, 전천후 활약 가능해 발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손흥민(22·레버쿠젠)의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된 가운데 박주호(27·마인츠)가 와일드카드로 발탁됐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이광종 감독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최종엔트리를 발표하면서 "박주호는 독일에서 사이드 어택과 수비형 미드필더 등 전천후로 2,3자리의 소화하고 있는 선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윤덕여 여자 대표팀 감독은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감독은 이날 엔트리 선발 배경에 대해 "지난 오만대회와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 위주로 선발했다"며 "와일드카드는 6-7명의 선수를 예비 엔트리로 준비하면서 3명의 선수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엔트리를 확정된 대표팀은 다음달 1일 선수들을 소집해 2주간의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조 추첨은 21일 열린다.

당초 손흥민의 빈 자리에는 와일드카드로 이명주(24·알 아인)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주호가 최종적으로 명단에 들면서 다소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감독은 "이명주도 많이 생각했다. 하지만 이명주의 소속 팀에서 이명주

를 보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 그런 문제 때문에 박주호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주호를 포함해 김승규와 김신욱 등 와일드카드 3명에 대해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을 갖춘 선수들로 뽑았다"며 "모두 팀에 와서 큰 도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신욱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훈련할 때 가서 만난 적도 있고 대표팀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아시아권에서도 김신욱은 큰 키에 기술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어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공백에 대해서는 "윤일록과 문상윤이 그 자리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주호는 손흥민이 안 와서 넣은 게 아니다"며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하는 것이고 한 위치에 구멍이 나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격에 비해 수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생각했으나 대상자가 다 군 면제가 된 상황여서 후보가 없었다"며 "장현수는 A대표팀에서 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m3346@news1.kr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송경빈  
978-844-1508



Jerry Song  
978-886-9695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99,000  
Newton, MA  
2 beds, 2 baths, 1226 sf.  
Perfect home for first time  
home buyer  
OT Kim 617-620-8242



\$52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70,000  
Newton, MA  
3 Beds, 1.5 Baths, 1788 sf.  
대중교통, 하이웨이 진입 편리  
Jason Jeon 617-642-5670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만 달러 이상 실적 /  
한국인 부동산 전문가 / 2014년 10월 / 100만 달러 이상 실적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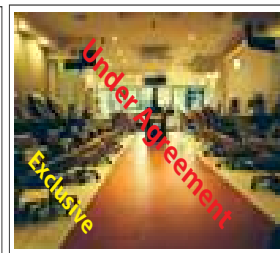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2 August 15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0

통증 치료부터 건강 관리까지,  
**닥터스 피지오(Doctor's Physio)**

221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617-731-1004  
www.goodpt.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통증치료전문 닥터스 통증병원은 브루클라인 점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는 물론, 통증예방을 위한 운동치료, 피부관리, 건강관리, 척추신경치료, 성장클리닉 등을 더해 월뎀(Waltham) 점을 오픈했다.

통증치료 전문의로서 30년의 교수 및 임상경력을 가진 윤창 원장은 미국에서 물리치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 5개주 물리치료 닥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 이은혜 척추신경 전문의는 서양의 한의학인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지압 요법) 박사 학위와 척추, 신경, 스포츠 의학, 키테시오 테이핑 관련 라이선스 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곧 한의학 박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

윤창 원장은 "문명발달로 원인 모를 병이 많아졌다고 하나 원인 없는 병은 없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세밀한 진단이 최우선이다" 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통증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성급한 처방보다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가고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한의학과 함께 서양의 지압법을 섭렵하고 있는 이은혜 전문의는 "상담 후 한의학으로 더 나은 치

료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에게는 한의원을 권유한다. 환자를 정말 위하는 마음을 느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데리고 또 찾으신다" 라고 말했다.

이은혜 전문의는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 수술을 권유 받은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이 필요치 않고 척추신경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병을 달고 사는 스포츠인 및 연주자, 발목 염좌 환자, 성장이 더딘 아이, 등이 굽은 환자, 산후조리하는 임산부, 아픈 곳이 없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상태가 때로는 환자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때로는 생각 이하로 가벼운 질병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기초진단과 환자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닥터스 피지오에서는 크게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y), 레이저 검사(Laser Therapy), 카이로프랙틱을 통해 신경, 뼈, 근육 등을 모두 다루며 진단하고 진료한다. 오십견, 두통, 목과 허리 통증,

급성 디스크,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생리통, 하악관절 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을 레이저 치료, 운동 치료, 뼈 교정, 신경 지압 등을 통한 치료와 함께 건



강 밸런스도 맞춘다.

Aetna(PPO), Blue Cross Blue Shield(PPO), Cigna(PPO), HPHC(PPO), 학생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적용되며 내원 전 미리 전화해 문의하면 보험 적용 범위를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진료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며 일요일은 휴무다.  
epark@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상담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주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던트(뮤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형제막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이너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47-960-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17-860-0171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자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카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시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철임플란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김/류영생	617-538-7851
이민항 보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8/5  
올스톤에 있는 식당 주방보조 아주머니와 케슈어 구함. T. 617-319-283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8/22  
세탁소 카운터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우스터 지역, 파트타임 T. 617-512-2758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8/25  
**N [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13  
**N [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8/13  
**N [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8/13  
**N [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8/13  
**N [구인]**  
둘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가능은 없다**

**{ 제한 없이 }**  
공간에 제한 없는 PC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모두 인정 }**  
한국대학도 인정하고 미국대학도 인정하는 대학 교양학점 취득!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간제 등록  
http://time.sdu.ac.kr . 82-2-2128-3232 . time@sdu.ac.kr

**보스톤 코리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8월 22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사랑스러운 매력 발산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괜찮아 사랑이야'의 공효진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13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7회에서는 지해수(공효진)가 장재범(양익준)과 다툼 장재열(조인성)을 위로하던 중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키스를 나눴다.

특히 해수는 재열과 사랑을 시작한 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애교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키스한 다음 날 아침 재열은 해수를 위해 아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열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해수 입에 넣어주

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해수 역시 달콤한 눈빛으로 재열을 바라봤다.

또한 해수는 재열과의 아이스크림 데이트에서 설렘과 수줍음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재열의 무릎을 베고 미소 지으며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역시 공효진이네",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달달하네",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조인성과 잘 어울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박해진, 우월한 8등신 비율 '댄디 그 자체'

(서울=뉴스1스포츠) 윤한솔 인턴 기자 = 배우 박해진이 가을남자로 변신했다.

박해진은 14일 남성의류 브랜드 지센 옴므와 함께한 2014 F/W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그는 따뜻한 그레이 계열 재킷에 블루 팬츠를 매치해 댄디한 매력을 한껏 과시했다. 아울러 박해진은 우월한 비율과 비주얼을 뽐내며 지센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 현장 스타프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또 촬영 틈틈이 스타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하면서 화보촬영에 임하는 등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한편 박해진은 오는 10월 4일 밤 11시 첫 방송될 OCN 새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이 숨어있는 최연소 연쇄 살인범 이정문 역을 맡아 연기변신을 시도한다.



## 클라라, 수영장서도 잘나가

(서울=뉴스1) 온라인팀 = 클라라가 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몸매를 과시했다.

클라라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드디어 제주도 햇살"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클라라는 비키니가 아님에도 노출 정도가 상당한 수영복을 입고 있다. 클라라의 수영복은 어깨 부분이 끈으로 돼 있고 가슴 부분은 겨우 가려지면서 허리와 복부가 노출돼 있는 스타일이다. 물에 젖은 클라라는 해맑게 웃고 있다.

클라라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클라라 몸매 너무 부럽다", "클라라 사랑합니다", "클라라 재밌게 놀다오세요", "클라라 몸매 완벽"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클라라는 오는 16일 밤 12시10분 첫 방송되는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SBS '패션왕 코리아2'에 출연한다.



## 홍진영 시구, 시타 나선 남궁민과 다정한 눈빛 교환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홍진영과 배우 남궁민이 각각 시구·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12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의 경기에 홍진영과 남궁민이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섰다. 두 사람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이다.

이날 홍진영과 남궁민은 KIA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다. 그라운드에 오른 두 사람은 가상 부부답게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사인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홍진영은 이날 화끈한 와이드업을 선보였으나 던진 공은 포수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시구가 원바운드로 들어가자 남궁민은 뒤늦게 치는 시봉을 보여 관중들을 웃음 짓게 했다.

홍진영-남궁민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홍진영 시구, 아 남궁민 웃긴다", "홍진영 시구, 폼은 좋은데?", "홍진영 시구, 둘이 잘 어울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8월 4일 ~ 8월 10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5.7%



**2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5.3%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1.2%

4	KBS1	KBS9시뉴스	17.0%
5	KBS2	개그콘서트	16.8%
6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5.0%
7	KBS2	해피선데이	13.7%
8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3.3%
9	MBC	일밤(아빠어디가, 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	12.7%
10	KBS1	전국노래자랑	12.5%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엔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Touch My Body	씨스타
02	한여름밤의 꿈	San E
03	Body Language	San E
04	Darling	걸스데이
05	HER	블락비
06	빨개요	현아
07	눈, 코, 입	태양
08	단발머리 (Short Hair)	AOA
09	명수네 떡볶이	박명수
10	JACKPOT	블락비

## 숫자 퍼즐 (Sudoku)

		1				5	3	
1						8		9
		4		5				
	7			6		2	4	
	3		8	1	2		5	
	1	2		9			8	
				7		1		
9		1						5
	4	5				3		

8월 17일 - 8월 2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기회는 새와 같은 것</b></p> <p>● 운수: 기회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훌쩍 날아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로 앞에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점차적으로 금전 운이 호전되어 갑니다. 자금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 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21일 길일. 18, 19일 주의.</p>	<p><b>소띠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는</b></p> <p>● 운수: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에 대한 좋은 제의를 받게 됩니다. ● 금전: 사업상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군요. 추진하던 일이 성사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이 받을 사랑의 몫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제 사랑 제가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전해주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범띠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b></p> <p>● 운수: 생각지도 않았던 곤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리한 일은 시도하지 않도록 하세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애정: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에게 성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토끼띠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주어야</b></p> <p>● 운수: 매매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적당한 작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결국은 될 일도 조금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틀어지고 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 애정: 정말 상대의 마음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용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b></p> <p>● 운수: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정이 샘 솟는 때이니 친구와 만나 정담을 나누고 같이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회전도 잘되고 부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프러포즈를 받게 됩니다.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뱀띠   생각이 필요</b></p> <p>● 운수: 모든 일에 있어서 직접 나서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과 협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금전: 뿌리 깊은 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이나 가물에도 끄떡없이 잘 버티어 나갑니다. 여유자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지금은 서로에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말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b></p> <p>● 운수: 가는 곳마다 한발 양보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주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생각보다는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 애정: 주위의 눈을 의식하거나 피해야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양띠   물과 같은 부드러운 포용력이</b></p> <p>● 운수: 진정한 강자가 되고 싶다면 물과 같은 부드러운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합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가끔적이면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주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기 쉽습니다. ● 애정: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속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원숭이띠   넓게 이해하는 마음과</b></p> <p>● 운수: 넓게 이해하는 마음과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보세요. 부드러운 대인관계가 필요한 주입니다. ● 금전: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니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닭띠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b></p> <p>● 운수: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아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매상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니다. 물품구입을 위한 지출이 따르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 애정: 상대로부터 확고한 사랑을 확인받는 애정의 주입니다. 미뤄오던 이성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p>	<p><b>개띠   실행에 옮겨도 좋은</b></p> <p>● 운수: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고 도전해 볼 만한 분야에 접하게 됩니다. 준비가 철저하다면 실행에 옮겨도 좋은 것입니다. ● 금전: 뒷날을 위해서 이미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용기를 가지고 솔직한 의사표현을 하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3일 길일. 21, 22일 주의.</p>	<p><b>돼지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b></p> <p>● 운수: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듯 자존심이 손상되기 쉬운 때입니다. 더욱이 과욕은 허탈감만 초래하니 주의하세요. ● 애정: 배우자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다툼이나 언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괜한 고집으로 집안에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2일 길일. 17, 23일 주의.</p>

# '진중권, 허지웅 일침에 "자질 운운한 거 미안" 트위터로 사과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영화평론가 허지웅과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허지웅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 선생이나 저나 어그로 전문가지만 이건 아니죠. 저는 '명량'이 전쟁 장면이 1시간이라서 훌륭하다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졸작'이라거나 '수작'이라거나 한마디만 툭 던져 평가될 영화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장점도 단점도 워낙에 뚜렷하니"라고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이미 그 단점과 장점을 간단히 글로 정리해 게시한 바 있는데도 정확한 소스 확인 없이 본인 주장을 위해 대충 농쳐 왜곡하면서 심지어 자질 운운한 건 진 선생이 너무 멀리 간 듯"이라며 "저는 자질 언급은 안하겠고 판을 깔고 싶으실 땐 조금만 더 정교하게"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이 이 같은 글을 남긴 이유는 앞서 진중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지웅이 쓴 '명량' 평론의 내용에 일침을 가했기 때문이다.

허지웅의 이같은 발언에 진중권은 논란이 된 본인의 글을 삭제하고 "허지웅이 자세히 썼다는 글은 아직 못 읽어봤고, 그저 뉴스검색에 이런 기사가 걸리길래 어이가 없어서 한 말. 그의 발언 취지가 왜곡된 거라면, '자질' 운운한 것은 그의 말대로 불필요한 어그로.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당시 진중권은 "짜증 나네. 그냥 명량은 영화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 했을 뿐인데, 애국심이나 486이니 육갑들을 떨어요"라며 "명량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영화적으로 어떤 면이 뛰어난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다 못해 허지웅처럼 전쟁 장면을 1시간 이상 끌고 갔다는 등... 물론 자질을 의심케 하는 뻔소리지만"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최민식, 류승룡 주연의 '명량'은 13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누적관객수 1174만을 돌파하며 역대 흥행 7위에 올라섰다.

허지웅-진중권 트위터 설전에 누리꾼들은 "허지웅-진중권, 둘 다 웃긴다", "허지웅-진중권, 완전 일침이네", "허지웅-진중권, 허지웅 빈정 상했다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명량', 개봉 15일 만에 1200만명 돌파.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솔 기자 = '명량'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은 관객 36만7799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1211만4489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명량'은 개봉 10일 만에 관객 800만 명을 모았다. 이후 '명량'은 개봉 12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15일 만에 1200만 명 관객을 돌파하며 연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관객 22만6946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254만8529명을 기록했다.

'명량'은 1579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그리며 배우 최민식, 류승룡, 조진웅, 김명곤, 이정현, 노민우, 진구, 권율 등이 출연한다



# 태티서, 온스타일 'THE 태티서'로 돌아온다...일상 공개 '기대'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솔 기자 =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이 걸그룹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하는 'THE 태티서'를 론칭한다.

온스타일 'THE 태티서'는 오는 25일 밤 11시 첫 방송을 통해 태티서의 메이크업부터 패션까지 그들의 스타일을 집중 분석한다.

'THE 태티서'는 태연, 티파니, 서현과 밀착 동행하며 그들이 스케줄이 없을 때 무엇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가는지 등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특히 태티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멤버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소박한 소망 등을 이야기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온스타일 제작진은 "태연, 티파니, 서현이라는 세 명의 20대 소녀가 작은 일탈을 꿈꾸는 솔직 담백한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닌 일상 속의 태티서를 만나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천지보살

운명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김 씨의 뿌리 (8)〉

## 김알지 탄생 신화에 숨은 뜻은?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산서성(山西省) 임분시에 금성(金城)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토성. 이곳에 김일제로부터 시작된 종가가 있다

무릇 건국시조 탄생설화 건국신화에는 당시 종족의 원류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김알지 탄생신화 역시 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석탈해왕 9년(AD 65) 김알지 탄생 신화는 아래와 같다.

“왕이 밤에 금성(金城)서편 시림(始林)숲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남을 듣고, 새벽에 호공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나뭇가지에 금색(金色)의 작은 껍데가 걸려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그 껍데를 가져다 열어보니, 그 속에 조그만 사내아가가 들어있는데 그 외모가 동탕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좌우에 일러 가로되, ‘이는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니냐’ 하고 거두어 길렀다. 차차 자람에 총명하고 지략이 많을새,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고 금곽에서 나왔으므로 해서 성을 김(金)씨라 하고, 또 시림을 고치어 계림(鷄林)이라 하고 국호를 삼았다.”

이상의 글에서 알지라는 이름이 흉노말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번 독자들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알은 흉노말로 금(金), 북(北), 왕(王)이라는 뜻이 있다. 알지의 ‘지’는 한자 씨(氏)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알지가 된 듯하다. 그래서 김알지(閼智)를 우리말로 옮기면 ‘김김씨’가 된다.

알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김알지의 원류가 흉노라는 것을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 나와있는 금성(金城)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가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흉노인들은 왕이 사는 도성을 의례히 금성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신라 김씨의 원류 투후(禿侯) 김일제의 영지 투성(禿城)은 지금의 산둥성 하택시 성무현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곳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신라 사람들은 자작나무를 숭배했다.

투성이라고 부르지만 주민들은 금성(金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왕망의 신나라가 망하고 나서 왕망을 지지했던 김일제 후손들이 후한 광무제의 복수를 피해 요동지방으로 도피하면서 그 길목에 있는 산시성(山西省)으로도 몸을 숨겼다. 지금 산시성 남부에 위치한 임분(臨汾)시 일대였다고 생각되는데 이곳에는 김일제로부터 시작된 김씨 종가(宗家)가 있고, 임분(臨汾)시 인근에는 금성(金城)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토성이 있다. (성현식 참조) 신라 도성 경주의 옛이름도 금성(金城)이었다. 이것은 신라 김씨의 원류가 흉노였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금계 속에 김알지가 들려 있었다는 말 역시 금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노인들에게 금은 제일



경주 천마총 새날개 관모 장식.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새가 천상으로 인도하여 준다고 새 모양의 토용이나 새날개 장식을 묘에 부장시켰다.

높고, 귀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성산(聖山)을 알타이(金山)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금계 속에 있는 김알지도 최고의 인물이라는 뜻이다.

“나뭇가지에 김알지가 들어있는 금계가 걸려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김알지 탄생이 절대자의 의도라는 것을 흰 닭이 우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흉노에게도 이와 비슷한 탄생 설화가 있다. 흉노인들이 세운 카자흐스탄 민족 설화에서 위대한 샤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여인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그녀의 염원이 나무를 통해 절대자에게 전해지고 절대자로부터 축복의 메시지가 새들이 날아와 나무 위에 앉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여인은 그대로 임태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후일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흉노족과 변진(가야, 신라)은 새를 영혼의 전달자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새나 새의 날개를 토용이나 금으로 만들어 무덤에 부장시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상을 여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신라가야, 흉노인들의 무덤을 발굴하면 의례히 수많은 새 장식과 토용이 발견되는

것은 영혼의 전달자로서 새의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김알지 탄생신화는 흰 닭을 통해서 김알지의 탄생이 절대자의 의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왜 굳이 흰 닭일까?

신라 흉노 사람들은 모두 흰색을 좋아했다. 그들은 특히 껍질이 흰색같은 자작나무(白木)를 좋아했다. 자작나무는 흉노인들이 살고 있는 한냉한 북쪽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신라 국내에서는 일절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도 신라 사람들은 흉노사람들처럼 자작나무를 좋아했던 것이다. 자작나무를 중국 사람들은 백목(白木)이라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시라기(白木)라고 불렀다. 신라 사람들이 하도 자작나무를 좋아하고 숭배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라를 시라기(白木)라고 부르곤 했다.

흉노족은 태양과 태양의 빛 흰색을 아주 좋아했다. 그들은 태양이 뜨는 왼쪽(東)을 오른쪽(西)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흉노족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선우(황제)가 되고 그 다음이 좌현왕이고 3번째가 우현왕이다.

흉노 의복을 호복이라고 하는데 왼쪽이 바른 쪽을 덮는 좌임이었다. 신라도 통일 전까지는 좌임이었다. 그들은 태양이 있는 왼쪽문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태양이 비추어내는 흰색의 빛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는 백마를 죽여 피를 낸 다음 그 혈주(血酒)를 함께 마셔 동맹을 확인했다. 흰색은 태양과 하늘을 의미했다. 흰색의 말을 잡아 조약을 맺는 것은 맹약의 주체가 하늘이라는 뜻이다. 흉노에게 흰색은 하늘과 선을 의미하고 검은 색은 악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라 사람들 역시 흰색이 하늘의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흰 닭이 울어 김알지 탄생이 하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한민족들이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태양의 빛, 흰 빛을 신성하게 알고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흰 옷을 죽은 옷이라 생각하고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 일본인들은 남색 옷을 즐겨입고 있다. 서양에서는 검은 옷이 죽은 옷이다.

흉노 후손들이 세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Kazakh)는 흰 말이라는 뜻이다. 건국의 주체가 하늘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맥락으로 신라, 가야, 흉노는 흰색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김알지의 원류가 북방 유목민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우리 민족의 새(Bird)사랑에 대해 연재하겠다.



묘지에 부장된 오리토용



가슴이 뜨겁다.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8월 15일 광복절 대개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 명량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 최민식

8월15일 대개봉

Showcase Revere: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781) 284-5701

영화 및 극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J-Entertainment.com](http://www.CJ-Entertainment.com) 그리고 페이스북 〈Asian movies N more〉을 참고 하세요

아시아나와 함께 하는 특별 이벤트! 〈명량〉도 보시고 한국도 다녀오세요!

명량을 보신 후 영화 티켓 사진을 이메일 (CJkoreanMovi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2분께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을 드립니다.

기간: 8월 15일~8월 24일 밤 12시 (PST 기준) 자세한 사항: [www.CJ-Entertainment.com](http://www.CJ-Entertainment.com) 참조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A380, 아시아나380이 8월 20일부터 LA ↔ 인천 운항을 시작 합니다.

A STAR ALLIANCE MEMBER ☆

아시아나항공



## 한담객설閑談客說: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아내가 말했다. ‘니 첫사랑은 나야.’ ‘그래도 눈은 높아서’ ‘마누라가 예쁘면 남자에게 뭐가 있을 거라 오해한다지.’ 내 입으로 스스로 실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내는 내 첫사랑까지 꿰뚫고 있고 넘겨짚는다. 내 첫사랑의 감미로운 추억까지 자복할 줄로 아내는 오해하고 있는거다. 내가 돌았나? 그런 걸 말하게. 속빈 강정 일방정, 내 눈은 매우 높았고 뭐가 한방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한방이 뭔지는 아직도 모른다. 아내는 기대를 슬슬 거둬들이는 듯 싶다. 이제는 ‘우리’ 義理 로 살아가는 나이인게다. 그 말을 의리상 입에 붙였다.

소설가 김영하가 말했다. 글쓰기의 기본은 연애편지라고 말이다. 연애편지는 독자가 정해져 있고, 글쓰는 목적이 확실하다. 게다가 최선을 다해 쓸 것이고, 거짓말에 온갖 미사

여구는 다 동원된다는 거다. 내 스스로 그의 말에 일단 수긍했다. 내 이 줄문들의 글쓰기도 아내에게 보냈던 많은 연애편지 덕인지도 모르겠다. 아내가 그 편지를 모두 모아 뒀던가? 그건 나도 모른다. 아내의 비밀박스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이사 다니면서 재생용지가 되었는지.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 내 첫사랑도 아내였음을 다시 토설한다. 거짓이나 과장이 아님을 새삼 강조한다. 사랑이 별것이더냐?

한국 택시 운전기사들이 관찰한 이야기다. 중년사내들이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면 대개 한잔 걸쳤는데, 피곤한 표정이 역력하다. 주행 중에 기사와 승객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이야기 나눈다. 마누라 이야기가 나오면 사내승객들은 열이면 아홉은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했다. 연민, 미안함 뭐 이런 것이

라던가. 사랑이 미안함으로 치환置換된 건데,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내들이 상당하다 했다. 자책감 같은 것일 게다. 그래도 서방이라고 믿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해 한다는 말이다.

이 노래는 산울림이 불렀던 거다. 아내는 송창식을 좋아했는데, 난 김창완이 낫다. 그도 구수히 늘어 간다. 하지만, 목소리는 전기기타와 어울려 여전히 젊고 주단처럼 부드럽다.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그런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앓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는 내마음 사뿐히 밟고 와주오.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아, 오랜만에 연애편지를 쓰려니 간지럽기가 날아 드는 나비와 같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래도 마음엔 진정 주단을 깔았다. 색이 붉고 여전히 빛난다. 당신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를 맞습니다. 내 마음 나비가 되어 날아가 앓습니다.

‘불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 서 건지느니라’ (잠언 10:2)

##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산악대장의 행진

"엄마, 김 서방(사위)이 미국 보스톤에서 '산악회 회장'이에요."

"그럼, 돈도 많이 받는 거야?"

함께 산을 오르며 보스톤 산악회 회장의 아내인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얘기를 전해준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친정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사는 딸과 나는 다정한 얘기를 내게 나눠준 것이다. 그래, 이 세상에서 '회장' 하면 '돈'과 비례하는 세상 아니던가. 돈이 없어도 회장 소리만 들으면 저절로 배가 불리고 넉넉해지는 그 회장의 이름에 돈은커녕 돈 대신 늘 칭찬보다는 불평을 더 들어야 하는 회장 자리도 있으니 바로 산악회 회장인 산악대장의 명패다.

보스톤 산악회 초대 회장으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전(답사) 준비와 회원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곁에서 보는 회원들 모두에게 귀감이 간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일 테지만, 산악회 단체의 회장은 특별한 특권도 없이 봉사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없다면 아마도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정기 산행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의 철두철미한 준비가 없이는 단 한번의 산행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으리란 생각을 한다.

보스톤 산악회 회장의 자리는 참으로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만 3년을 지나 4년 차에 오른 아직은 서툰 초보 산행자다. 토요일의 일정 중 아주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면 산행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놓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맡음이 산악회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해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트레일을 찾기 위해 답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그들에게 지워진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저 일반 회원들이야 날짜와 시간에 맞춰 따라가면 그만이지만, 그 하루의 산행 일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의 시간과 노고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한국을 방문하면 산을 함께 오르는 몇 친구 그룹이 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은 각 산악회에서 오래도록 산악대장을 한 베테랑 산악인들이다. 자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는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고 아끼는 오라버니와 그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말이 없고 우직하고 똑심 좋은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친구와 그 외의 친구들이 몇 있어 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아직은 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초보이기에 산을 오를 때 웬만하면 산을 잘 아는 베테랑 친구들과 오르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 방문 중에 가끔은 친정 조카와 조카 사위가 산을 좋아해 셋이서 함께 오르기도 한다.

옛그제는 바위로 뒤덮인 King Ravine Trail을 5시간 남짓 올라 정상인 Mt. Adams에 도착했다. 참으로 험준한 산행길이었다. 숲이 우거진 산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틈 하나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바위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곳으로 고개를 내밀어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할지 막막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트레일이었다. 산의 길을 제대로 모르면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그런 산길을 말이다.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대장이 필요한 것이다. 산악대장님과 늘 새로운 트레일을 개척하시는 조장님이 함께 있어 든든했던 산행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순간순간 아찔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다.

물론,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느낌은 다를테지만, 산을 오른 후의 느낌은 언제나 힘들게 올랐을 때 더욱 감동을 받고 그 감격이 아주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옛그제 올랐던 '킹 라빈 트레일'은 미국인들도 힘들다

고 다른 길을 택해 돌아가는 길이란다. 그래서 더욱 한번 올라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온 산이 모두 바위로 뒤덮인 듯 보이는 산행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어려운 산이었다. 날카롭게 각을 세운 바위에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큰일을 만날 것 같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산행길이었다. 어쩌면 바위도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에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산을 오르는 내내 산악대장님은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Map(산행지도)을 손에 쥐고 맞는 길이지만 혹여 다른 길은 아닐까 싶어 몇 번을 펼쳐 확인한다. 언제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산악회 회장님의 그 준비에 산악회 회원들은 고마운 마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에서 연세 드신 장모님이 사위가 보스톤 산악회 회장이라는 딸의 말에 돈을 많이 받느냐고 물어보셨던 그 돈보다 더 값진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때로는 산악회를 이끌어가기가 어찌 쉽기만 할까.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산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산악대장의 행진일 뿐인 것을.

# 2014년 제4회 대학연합 친선 골프 대회

제4회 NE지역 대학동창회 친선골프 대회를 모음이 8월 23일(토)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에서 열립니다.  
 2010년 7개 대학이 모여 나눈 화목함과 친선의 기회를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친선과 화합의 행사에 NE 지역 7개 대학 및 다른 대학과  
 미국 대학교 졸업생 모두 초청합니다.  
 Scramble 경기 운영으로 초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점심과 저녁식사, 트로피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성적보다는 여러 분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8월 23일(토) 오후 12시 30 분 tee-off (11시 45도착 도착 필요)**  
**장소: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  
**참가비: \$100/pp**  
**참가신청: 이재규(jaeqlee@gmail.com; 978-314-9620)**



##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5)

지난 주에 이어...  
윤봉길 의사는 즉시 일본헌병에 이끌려 일본의 오사카로 후송되었다. 죽기를 작정하고 일으킨 거사이니 윤봉길 의사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일본 육군 군법회의는 윤봉길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언도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12월 29일 오사카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24세의 젊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윤봉길은 체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본헌병으로부터 말 못할 폭언과 무서운 고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형장에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조국과 가족에게 남긴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관보에서 그 모두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윤봉길의 홍구공원의 거사후 일본 관헌은 곧 상해임시정부의 요원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김구 선생은 피신하는 몸이 되었고 안창호 선생은 체포되어 서울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중국의 장개석 정부는 상해임시정

부를 승인하였으며 김구주석에게 원조를 약속했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오던 1943년이다. 미, 영, 중 3개국 영수가 전후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월 22일 카이로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주장으로 “한국 인민이 노예상태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결의한다” 는 특별조항을 삽입하여 선언했다.  
윤봉길 의사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대한의 영웅이었다. 1992년 한국에 갔을 때이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사면에있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찾아 본 일이 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거사의 준비와 그 성공 그리고 그후 상해임시정부의 대일항쟁에 대하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 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일본의 관동군은 상해사변 후에도 침략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진격하여 만리장성의 동쪽관문인 산

해관을 점령하여 중국본토와 만주국의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이어 열하성으로 진격하여 열하성을 점령 만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주장하기를 만주는 중국본토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하면서 만주 점령을 중국침략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의 야심은 17세기에 만주에서 일어나 청왕조를 건립한 후금(後金)의 영토에 만주국을 세운다는 계획이 분명했다. 군국주의 일본은 침략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북지(北支)로 진출하여 중국을 위협했다. 일본의 역사학자 우에무라시게키(植村)는 그의 저서 <중국사>에서 말하기를 “악마를 단지에서 풀려나게 놓으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잡아넣을 수 없다.” 고 했다.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난한 말이겠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5 무예도보통지와 박제가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덕무, 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저술한 박제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언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과격한 행동가였고 급진적 개혁론자였다. 그는 박평朴坪의 서자로 한양에서 1750년에 태어났다. 아버지 박평은 우부승지를 지냈으며 그는 고려 총렬왕 때 내부시승을 지낸 박척의 후손이다. 정치적으로 그의 가계는 소북계열에 속했는데 박제가가 노론으로 이적하였다. 그의 6대조 때부터 소북계열로 아주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관찰사, 승지 등의 관직으로 문신의 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박제가의 생모는 첩이었고 그는 서자였다. 그는 기억력이 비상하였으며 한 번 읽은 책은 반드시 세 번씩 필사하면서 암기를 하였고, 항상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래에 그림을 그렸고 허공에 글을 쓰며 자랐다고 한다.

그의 탁월한 재능을 본 박평은 그가 서자인 것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했지만 당시의 신분상 어쩔 수 없이 마냥 그가 좋아하는 시문과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었다. 1760년, 그가 11살때 그들 모자를 돌봐주던 아버지 박평이 죽자 그들은 본가를 나와 거처를 자주 옮기면서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관상(충무공 이순신의 5대손이다.)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관상 또한 그의 천부적인 소질을 높이 사면서 가장 아끼는 제자로 키웠다. 그리고 자신의 서녀를 그에게 출가시켜 박제가를 서녀사위로 삼았다. 결혼 당시 그는 16세였다. 이 같은 사회적 신분제도로 인하여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자란 박제는 양반제도와 사회계급의 모순에 불만을 갖고 비판하면서 하층민과 빈곤한 농민들의 삶과 ‘인권’ 을 대변하면서, 후일 노론의 거두 심환지에게 까지도 직설을 하면서 대들곤 하였다. 장인 이관상 역시 아버지 박평과 같이 늘 그의 재능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그가 서자로서 출사를 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성리학 등 많은 서적을 접하게 하였다. 그리고 후일 그가 19세 때 연암 박지원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면서 그의 문인이 되었고, 당적을 소북에서 노론북학파로 옮겼다. 연암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등 많은 실학자들과 교제하였다. 이 중 이덕무와는 아주 절친한 벗이 되었다. 아홉살이나 연상인 이덕무와 평생을 함께하는 교제는 둘 다 서열이었으며 북학에의 관심이 일치했음이다. 그리고 그들은 북

학의 선구자인 홍대용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박제가의 나이 27세 때인 1776년, 그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면서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실력있는 젊은 학자들을 많이 등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정조는 ‘서얼허통절목’ 을 공포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양반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은 이 왕명은 당시 또 다른 사회의 한 면인 서얼차별의 사회문제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이 왕명으로 인하여 박제는 북학에 조예가 깊고 학문이 뛰어나다는 정평으로 청나라 사은사로 가는 수행단에 합류할 수 있었고 당시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채제공을 수행하여 청나라를 다녀왔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보고 배운 문명의 이기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는 여행기간 동안 체험한 상세한 기록들로 ‘북학의’ 라는 대논문을 저술하였다. 북학의는 내외 두 편으로 된 책이다. 내편에는 수레, 배, 성, 벽, 궁실, 도로, 교량, 소 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들이 서술되어 있고, 외편에는 전제, 농장총론, 과거론, 관론, 녹제, 제정론, 장론 등의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점을 지적하여 개혁방안을 서술하였다. 그는 북학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과거제

도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형식에 얽매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시험 그리고 적서의 차별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서자와 백성들의 기회 등을 혁파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과 타성에 젖은 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 못지 않게 소비를 많이 해야 삶이 윤택하다고 주장하였다. 청빈과 근검절약은 미덕이 아니며 그것은 결국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구자적 혜안은 ‘소비가 미덕’ 이라는 현대 자본주의 이론과도 부합된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는 ‘양반’ 들을 계몽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적 차별을 없애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천시하지 말고 장려해야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으로는 1790년 무예도보통지 편찬을 하였으며 또한 많은 실학 서적들을 발간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기득권 세력의 벽을 부수지 못했고 그의 혁신적 이론은 결국 그의 말로를 불행으로 이끌어 갔다. 1800년, 실학의 후원자 정조가 죽자 권력을 잡은 노론벽파는 남인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실학과를 모두 제거하면서 박제가도 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신유사옥(윤행임 반역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울가미를 쓰고 종성으로 귀양 갔다가 1804년에 풀려나서 이듬해 죽었다.



# Boston Nehemiah Institute

## BNI 평신도 신학원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는 사역의 첫 출발로 BNI 평신도신학원을 개설합니다.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교회와 평신도들을 돕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신학과정들을 보스톤 지역의 목회자들을 포함하는 전문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 FALL SEMESTER

**월요일 7:30pm-10:00pm**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 선교 큰 그림 그리기 9/15 - 10/20 (5주) 김건철 목사 BU, PhD Candidate, 선교역사
- 예수와 하나님 나라:마태복음 10/27 - 11/24 (5주) 장계은 목사 BU PhD, 신약

**화요일 7:30pm-10:00pm** 장소: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 구약 꿰 풀기 9/16 - 10/14 (5주) 권오진 목사 Harvard PhD 수료, 구약
- 기독교 예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0/21 - 11/18 (5주) 최형락 목사 BU ThD 수료, 예배학

### BNI 사명

- ✓ 첫째,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건강한 신앙 지도자를 육성한다
- ✓ 둘째, 선교지에서의 신학교육을 담당할 보스톤 지역 교수진을 육성한다.
- ✓ 셋째, 참기적으로 복한 개방을 대비하여 신학교육을 통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 ✓ 넷째, 한인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 균형잡힌 미래세대 지도자들을 배출시킨다.



### SAVE THE DATE, 9/8 7:30pm!

평신도신학원 개원을 앞두고 BNI는 공개강좌를 엽니다.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평신도신학원 강사로 2014년 가을 II 학기에 강의하게 될 장계은 박사가 최근 영국에서 출판한 본인의 저서 The Community, Individual, and Common Good 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유익한가? 복음의 공익성에 대한 바울의 호소"의 제목으로 강연합니다. 일시는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성요한 교회입니다.



이사장 이영진 목사 ygleekcb@hotmail.com, 617-595-9196  
 평신도 신학원 원장 김희수목사 fskim1953@gmail.com, 617-485-4582

재무이사 권옥태 장로 boktaekwan@gmail.com, 781-408-9430  
 평신도 신학원 사무처장 유경연 목사 kyunglyu@hotmail.com, 781-439-1840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 "부모가 가장 좋은 성교육 교사" (올바른 성교육 I)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칼럼을 읽기 전, '성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란다. 많은 자제분들이 무척 숙쓰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HIV나 성병, 임신을 피하는 법을 알려 주려는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성병이나 임신 방지를 위한 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훈육적인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공포감과 불신을 일으키며 지나친 경계심을 줄 수 있다. 훈육이 아닌 올바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욕'을 솔직히 이해해야 한다.

'성욕'이란 사춘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갖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성욕'에 대해 많은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부끄러워 더욱 함구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이성을 보면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지나게 되면 접촉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이치이다. 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아이들이 더이상 함구할 수 없을 때 인터넷이나 친구들을 통해 풀어보려 한다. 이 미숙한 해결 방법이 주는 '부작용'은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성욕'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세 가지 욕구(수면욕, 식욕, 성욕) 중 하나이다. 수면욕과 식욕이 생명의 필수요건이라면, 성욕은 '종족보존'에 필수요건이라 생각한다. 그 예로, 여성이 배란기가 가까워 올 때 옥시토신의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성욕이 왕성해진다. 또한 프로이드는 '성욕 본능'을 인격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성욕 본능에 의한 생의 에너지, 리비도(Libido)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생애 열정을 갖게 하며, 생식에 대한 욕망, 타인

의 필요성, 일이나 예술에 대한 창조성을 갖게 해준다"라고 말했다. 즉, 성욕 본능은 우리의 '생'에 활기를 더해주고,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학설이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갖게 하고, 서로 다른 '성(Gender)'의 차이를 인정하게 도와주고, '성폭력'이나 '성학대'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이 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장 과정의 올바른 성교육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가장 좋은 성교육 교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는 언제부터 어떻게 성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해 아이들이 아동기를 지나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성교육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성교육이 어떻게 성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아동기 전기(3-6세)에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이 많고, 이 시기 성의 발달은 일생의 정체감(sexual identity)과 이성에 대한 믿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일생을 걸쳐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각자의 성 역할을 배우고, '여성', '남성'이라는 개념의 기초를 형성한다.

동성애의 근본 원인을 아동기 당시의 성적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정신분석학적 견해의 프로이드, 클라인, 버글러, 비버, 소키라이즈)이 있다. 그 중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양성적성향(bi-sex-

ual)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지만 부모의 여성 남성의 동일화를 통해 복잡한 행동의 규범을 통해 이성애적인 경향(hetero-sexual)으로 성숙한다고 주장한다. '성인이 동성애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기 당시의 성적 발달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학설을 통해 부모의 성 역할이 유아기 아동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Single Parent)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다른 남성(예: 할아버지, 삼촌) 혹은 다른 여성(예: 할머니, 이모, 고모)으로 비어있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대체해주는 것이 좋다. 잦은 출장과 직장의 바쁜 업무로 한쪽 부모의 부재가 불가피하다면, 부재가 있는 부모는 남은 시간에 일보다 아이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고, 부모 서로가 아이 앞에서 애정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애정있는 접촉은 이 시기의 아동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사랑의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아동의 소속감이나 상대편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아동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성교육은 성지식 자체보다는 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이 시기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적 질문에 야단을 치거나, 말문을 막아 버리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옳지 않거나 비밀스럽다는 느낌으로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고, 더욱 심각한 이슈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기 쉽다.

그렇다면 아이가 성에 대한 난처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너도 크면 차차 알게 된다"라는 웅색한 응답으로 대응하기보다 당황하지 말고 "다소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야기해 보자꾸나"하고 분

위기를 조성한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아기의 출생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다. 이때는 그림책을 보며 남녀가 접근하면 수태를 하고, 임신,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 그리하여 마침내 아기가 출생한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생식기의 명칭을 '고추' '잠지' '찌찌' 등의 유아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음경이란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게 고환이야. 여기서 바로 아기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너무 많이 만지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아기씨가 상하게 된단다.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적인 명칭은 성을 장난스럽게 보거나 더럽거나 하찮은 것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을 건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 동생이 생긴다면, 엄마의 배가 불러지는 것을 만져보게 하고 생명에 대한 신비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아이에게 중요하다.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이외 혹은 부모가 허락하는 의사 선생님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웃이나 선생님이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비비려고 하면 당당하게 "안 돼요! 싫어요!"를 크게 외치며 도망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즉시 주위에 알리고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해줘야 한다. 음식이나 장난감을 주는 등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경계하기, 낯선 사람 차 타지 않기 등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아동기 후기와 사춘기 과정의 성교육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료 상담**  
(2013-11-31까지)

Dr. Jeong Sook Lee (정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 Welcome, **tbo**

**앤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행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4.99로 과금)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상속세 및 증여세

##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5백만불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안 낸다는데...

지난 주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및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과세 대상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증여자는 증여가 발생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증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금액 중 비과세 대상인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과 부부간에 이루어진 증여(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만 해당)를 제외한 과세대상 증여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증여금액이 \$14,000이하라면 신고할 필요 없어

과세 대상 증여금액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연간면제액(annual exclusion)인 \$14,000(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145,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수증자(donee)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14,000초과여부는 증여자 입장이 아닌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합

니다. 즉, 증여자의 2014년 총 증여액이 \$14,000을 초과하더라도, 수증자 중 \$14,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자가 없다면 증여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2014년도에 지인 10명에게 \$10,000씩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김한국씨의 총 증여금액은 \$100,000으로 \$14,000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14,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지 않았습니. 따라서 김한국씨는 2014년도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제 납부할 금액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을 하고 난 금액임

증여자가 연간면제금액을 초과한 증여금액을 신고한다하여 반드시 그에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법에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세(또는 상속세)에서 \$2,081,000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도의 통합세액공제액은 \$2,081,800인데,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는 평생면

제액(lifetime exclusion)인 \$5,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전에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금액과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을 합한 금액이 \$5,340,000이면 그에 대한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2,081,800계산되는데, 그 세금을 다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증여자(또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2,081,000보다 적다면 실제로 낼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는 1인이 평생 증여나 상속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해에 통합세액공제 중 일부금액을 공제받았다면, 향후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81,000(평생면제액 \$5,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2014년도에 아들 한 명에게 \$1,014,000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2014년도의 증여세는 \$345,800입니다. 그런데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2014년 증여세에서 \$345,800을 다 공제받게 되어 그가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국씨는 이미 \$345,800을 공제 받았으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그가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 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345,800이 줄어든 \$1,736,000(평생면제액 \$4,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됩니다.

	평생면제액 (lifetime exclusion)	통합세액공제액 (unified tax credit)
최대가능금액 ①	\$5,340,000	\$2,081,800
2014년공제액 ②	\$1,000,000	\$345,800
향후공제가능액 ③=①-②	\$4,340,000	\$1,736,000

한편, 부부중 한명이 평생면제금액인 \$5,340,000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평생면제금액인 \$5,340,000중 \$1,000,000을 사용하고 사망했다면, 그의 생존 배우자가 그의 미사용액 \$4,340,000을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의 생존배우자는 최대 \$9,680,000(본인 해당액 \$5,340,000 및 김한국씨 미사용액 \$4,34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부 둘 다 생존해 있다면, 부부는 합해서 최대 \$10,68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3)

# “모르는 계약”

고사성어인 식자우환[識字憂患]은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인용합니다. “도대체 투자자는 어느 정도 바보인가? (Just How Dumb Are Investors?)” 라는 제목으로 제이슨 즈웨이그 재정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의하면 지난 30년 주식 시장 수익률(S&P 500 Index)은 평균 11.1%이었지만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단지 3.7%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과 투자자가 받은 수익률의 차이가 무려 7.4% 차이입니다. 수익률 7.4%는 50만 불 투자가 10년 후 10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는 자만감 때문입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재정상담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를 굳이 말한다면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주식투자에 많은 경험과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펀드 매니저는 자나 깨나 유망한 회사 선별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상승하는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자신이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가 잘 되고 그래야 많은 투자자가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약 20% 정도만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망한 회사를 선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주식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일을 개인이 직접 합니다. 본인이 매우 이성적이고 투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운전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이 되려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

균 이상으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식투자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만감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러한 자만감은 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너도나도 투자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알려 준다고 합니다. 거래비용도 매우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아 야 월스트리트에서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막대한 돈을 광고와 선전으로 사용합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즐기며 작은 내기를 친구들과 합니다. 실력이 비슷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타이거 우즈라면 어떠한 내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로저 페더러가 상대 선수라면 당연히 내기하지 않습니다. 시합해서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두려움 없

이 소중한 돈을 투자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식투자 상대방은 막대한 자금, 정보력,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주식투자에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겸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 주식과 채권의 평균 수익률과 위험성(volatility)을 함께 알아봅시다. 투자하는 목적(goal)을 설정합니다. 얼마 동안 투자하는지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자산분배(asset allocation)입니다. 둘째, 주식투자는 큰 회사, 중간 회사, 작은 회사, 외국 회사 등으로 분산투자합니다. 채권 역시 짧은 기간, 장기간, 회사채, 국채 등으로 분산투

자합니다. 셋째,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있을 때 폭락하든 꾸준히 정기적으로 투자합니다. 끝으로 처음에 분산투자했던 비율로 리밸런싱(rebalance)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처음에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주식이 60% 그리고 채권이 40%가 되었다면 각각 50%로 재분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투자”입니다. “무지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일을 잘못되게 합니다.” 이것은 ‘툼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주식투자에 자만감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프로즌 요거트 사업을 함께 할 미래의 브랜드**



사계절 매출을 창출해줄 새로운 매니지먼트 사업 아이템  
 프로즌 요거트와 최고 품질의 커피 메뉴로  
**프랜차이즈 FROZEN SWIRLZ** 가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장소 선택 및 상권 분석**  
**종업원 채용 및 실전 교육**  
 은행 융자 및 장비 리스 관련 상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분들의  
 개별 상담 환영합니다

**781.704.4825**



문의: MAXSON DEVELOPMENT LLC.

Mr. Paul Son: [bkcsn@gmail.com](mailto:bkcsn@gmail.com) | 781.704.4825  
 300 Newburyport Turnpike Rowley, MA 01969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 6년제 약학박사 과정

미국에서 의료 관련 직종은 인기가 높다. 하지만 유학생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거나 의학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 확률이 높은 약대나 치대 문을 두드리는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약학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본 교양 과목과 약대 본과 4년 과정을 함께 묶은 6년제 약학박사(Pharm.D.)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주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약학 대학원은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사 학위(B.A. 혹은 B.S.)를 딴 후에 약대로 진학해 본과 4년 과정을 거쳐 Pharm.D. (Doctor of Pharmacy degree)를 따게 된다. 이 학위가 있어야 북미 약사 시험인 NAPLEX와 각 주에서 시행하는 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R.Ph. (Registered Pharmacist), 즉, 정식 약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Pharmaceutical Science 전공은 약학에 관한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 학위로는 약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다.)

약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선 약학 공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부 과정 과목들(유기화학, 생물학, 해부학 등)을 좋은 점수로 이수해야 하고, 약대 입학 시험인 PCAT을 치러야 한다. 봉사활동 혹은 인턴십 등의 이력과 2-3부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PCAT을 면제해주고, 2년 동안의 선수과목(pre-requisite courses) 내신 점수만으로 약대 본과에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6년제 약학 박사 과정이다. 크게는 선수과목 성적 등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본과로 진학할 수 있는 조건부 2+4 제도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본과 진학이 보장되는 0+6 제도로 나뉜다. 약학 과정과 같은 전문 대학원을 통한 과정은 다른 학교의 학점을 인정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편입하기도 까다롭다. 결국, 약대 진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pre-pharmacy 과정을 통하거나 6년제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게다가 주에 따라서는 해당 주에 소재한 고

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외국 유학생에게도 미국 시민과 같은 in-state tuition을 적용시켜 주거나, 높은 내신과 토플 점수가 있다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Boston 근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자신의 내신 점수와 이력에 자신이 있다면 Massachusetts 소재의 MCPHS(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 Health Sciences) 0+6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만 하다. MCPHS는 미국의 124개 약대 중에서 0+6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 9개 약대 중 하나이기도 하고, 유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잘 해주는 학교로도 유명하기 때문이다.

약사는 다른 전공의 대학원 출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남성과 여성 간에 연봉 차이가 적은 편이라 특히 여성들의 직장으로 인기가 높기도 하다. 2011년 기준으로 여성 약사의 평균 연봉은 약 \$111,000으로 남성 약사 평균 연봉의 92% 수준이었다. 실제로 매년 약대를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게다가 약사는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에 대한 추가 근무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돈을 더 벌기를 원치 않는다면, 약국에 있을 때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약국

문을 나서면 개인 시간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년제 약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통합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공부와 학점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PCAT을 면제해주는 여러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 교양 및 전공 과목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특수 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과도 힘들다는 점 또한 약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약학 공부와 약사 활동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신을 관리하고 SAT Subject test Math Level 2와 Chemistry를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 이력과 약학에 대한 열정 또한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관련 분야에서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1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SU)은 1870년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에 농업 기술 대학(Ohio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으로 처음 설립된 명문 주립대학중 하나이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이 무상토지 불허법안(Land-Grant Act)을 통과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다시말해 정부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주고 학교를 설립하여 그 주 출신 학생들에게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보다 많은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립된 대학이다. OSU가 처음 오하이오 농업 기술 대학으로 출발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대학으로 주변 Lima, Mansfield, Marion, Newark, 그리고 Wooster에 분교들이 있다. 1878년 오하이오 주 러더퍼드 헤이즈(Rutherford Hayes) 주지사에 의해 오늘날 불리우고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으로 개명되었다.

이 학교는 대규모의 주립대학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리서치, 뛰어난 교수진, 우수한 학생들, 최고의 스포츠팀들을 갖추며 급속하게 발전한 대학이다. 전문화된 대학원들을 지

속적으로 설립하여 아카데미 분야를 더욱 강화 시킨 대학으로 현재 전분야가 미국 상위 50위권 이내에 속한 리서치 중심 주립대학이다. 많은 동문들이 노벨상, 풀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는 많은 명예의 전당자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유명한 인사 몇명만 나열해보면 위대한 올림픽인인 제시 오웬(Jesse Owens),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 등이 오하이오 주립대학 출신들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전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갖추기까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많은 리서치 프로젝트를 획득했고, 우수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와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많은 유명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스포츠가 강한 학교로 NCAA Div. 1에 속하며 Big Ten 리그에서 여러차례 다양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지상과 매스컴을 통해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린 점도 있다. 앞으로 이 학교는 단지 주립대학일 뿐이라는 인식보다는 우수한 리서치 중심 대학으로 인식되면 좋을 듯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아카데미 프로그램

OSU는 총 14개의 학부생들을 위한 단과대학에 175개의 학부 전공이 있다. 학부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코스는 총 12,000개이고 현재 49,466명의 학부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 큰 대학이다. 학교의 학제는 일년 3학기제에서 2학기제로 바뀌어 운영이 되고있다. 가장 강한 프로그램으로는 경영, 프리메드(Premed), 공학, 교육, 지질학, 산업 디자인, 언어학, 심리학 등의 과목들이다. 단과 대학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치과 대학(College of Dentistry)
2. 교육 대학(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Ecology)
3. 공과 대학(College of Engineering)
4. 식품, 농업, 환경 과학 대학(College of F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5. 의과 대학(College of Medicine)
6. 간호 대학(College of Nursing)
7. 안과 대학(College of Optometry)
8. 약학 대학(College of Pharmacy)
9. 보건 대학(College of Public Health)
10. 사회 복지 대학(College of Social Work)

11. 수의 대학(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12. 인문 과학 대학(College of Arts and Sciences)
13. 존 글렌 행정 대학(John Glenn School of Public Affairs)
14. 맥스 피셔 경영 대학( Max M. Fisher College of Business)
15. 모리츠 법학 대학(Moritz College of Law) 등의 단과 대학들이 있다.

보다 자세한 단과 대학별 전공은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www.osu.edu/academics)

학생들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학사와 석사 학위 동시 프로그램, 복수 전공 (Double Major), 인턴십, 교환 학생 프로그램, 고등학생의 대학 프로그램 수강, 워싱턴 시메스터 프로그램(Washington Semester) 등이다. 현재 총 3400명의 정규직 교수들과 약 1400여명의 파트타임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턴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턴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 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